朝鮮日報
二十一日夕刊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居然一年의 레닌

× 投獄, 追放, 脫走, 亡命! 그리고 浮寄蹤跡으로 一生을 放浪하다가 한번 風雲의 際會를 타서 靑天의 霹靂과 가티 無産者革命의 絶大한 新事業을 形成하야 人類史上에 特書할 新紀元을 짓게 하고 되히 天下後世에 無數한 被壓迫無産階級을 爲하야 泰山北斗와 가튼 瞻仰의 表象이 되고 그의 革命兒들의 開祖와 宗匠을 짓게 되니 『우라지밀·울리아노푸』 卽 『니콜라이·레닌』 其人은 과연 現代가 나흔 最大의 人物이엇섯다

× 그의 革命이 한번 世間에 傳播되매 世界資本主義國家의 支配階級들은 온갓 驚異와 疑惑과 嘲笑와 怨罵로써 空中의 蜃氣樓와 가티 不久에 곳 消滅될 것을 期待하더니 그들의 組織과 訓練과 및 時代에 適應하는 眞熱한 努力은 七週年을 지난 오늘날 비록 不少한 難關이 그를 러 現實의 懲哀를 늣기게 하는 바 잇섯스나 累千年來 積滯되든 因襲의 潛力이 넘우나 强大한 것을 생각하면 그는 돌이어 當然한 理勢이다 그러나 그가 他界를 지은 지 발서 一週年 이제 그의 第一回의 命日을 마지하니 또한 사람으로 敬依히 故人을 悼惜하는 情이 잇게 하도다

× 그가 잇슬 때에 이미 新經濟政策의 採用 等은 好言者流로 하여곰 『쏘비에트』 政治의 運命을 云爲케 되엿섯고 그가 간 後에 다시 近者 『토로츠키』派의 反目으로 『쏘비에트』 政府의 內訌을 傳하든 바 어니와 남어 잇는 그의 同志들은 가장 忠實하게 『레닌 동무』의 遺志를 繼述하니 그가 비록 中途에 阻折된 슬픔이 잇스나 그의 功業인즉 또한 永久히 湮滅됨이 업시 無數한 後繼者들로 因하야 항상 勝利의 途程을 進行할 것이다 嗚呼 斯人이여 時代의 偉門戶를 열어 노흔 人類解放의 偉人! 그의 英靈은 또한 安息함이 잇슬지어다

日露協約調印

× 北京二十日發至急電에 依하면 日露基本協約은 二十日午後十一時에 調印되엿다 한다 아즉 그 詳細는 알 수 업스나 向者本報에 紹介된 基本協約正文에 依하면 아마 大差는 업슬 것이다 이에 對하야 詳細한 後報를 기다리려니와 相互間의 宣傳禁止問題와 및 利權의 授受條件이 어써케 落着이 되엿는지 이미 調印이 되엿다 하니 累年來의 兩國의 懸案도 인제는 解決의 端緖를 어든 모양이어니와 英露協約의 破棄와 中露協約의 善後處置가 아직도 遲滯中에 잇는 것을 보면 그의 前途도 또한 全혀 樂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그러나 孤立한 日本의 地位로써 밀리는 英米의 勢力이 極東을 威脅하는 形勢이오 不安定한 中國의 政情과 또는 그들 帝國的 運命의 存廢의 所關을 생각하는 朝鮮外지들을 아울러 자못 炎炎한 紅焰에 近火狀態를 늣기는 日本이 그의 缺乏이 만흔 物資의 供給外지들이 『러시아』에게 依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國情인 바 또한 그 調印된 協約을 誠實히 履行하도록 努力할밧게 업슬 것이니 그들이 利權獲得과 및 宣傳禁止에 最大努力을 기울여 가며 協約實現에 汲汲하는 것은 곳 這間의 消息을 말하는 바이다 『레닌』이 간 後 一週年 이 極東의 一帝國과 新協約을 調印하는 『쏘비에트, 러시아』! 吾人은 그 今後를 諦視할 만하다

日露基本條約調印 二十日夜半北京에서

(北京二十日發至急電報) 日露基本協約은 二十日午後十一時調印하얏더라

兩代表喜色滿面

(北京二十日發至急報廾一日午前四時着電) 北京의 日露交涉은 二十日午後十一時 無事調印되얏다 芳澤公使는 右의 旨를 語하며 兩代表는 모다 喜色滿面하더라(號外再錄)

國交再次回復 永年間斷絶되얏던

(北京二十日發) 日露交涉은 二十日午後七時부터 最後會議를 開하고 兩國代表가 緊張裡에 折衷한 結果 全혀 交涉이 成立되야 午後十一時에 調印을 終了하고 玆에 永年斷絶되엿던 兩國國交는 再次回復하게 되엿더라

名稱은 日露條約으로

(北京二十日發) 調印된 日露協定文의 名稱은 日露條約의 形式을 採用하엿더라

會議繼續七十八回

(北京二十日發) 一年四個月이나 迂餘曲折을 經하야 日露交涉도 드듸여 調印하게 되엿는대 今日外지 會議를 거듭한 回數가 實로 六十二回에 達하얏스며 此에 豫備交涉十六回를 加하면 七十八回에 及하얏스며 所要時間은 五百餘時間에 達하얏더라

效力發生은 언제 自然二月中旬頃될듯

(北京二十一日發) 調印을 了한 日露協約은 各本國에 送達하야 批准手續을 取할터인데 日本은 樞密院의 審議에 約三週間을 要할터임으로써 效力發生은 二月中旬이 되리라더라

調印公報到達 日本外務省에

(東京電) 北京에 在한 日露兩國全權間에 調印을 終了한 公報는 二十一日曉外務省에 到達하엿더라

樺太撤兵은 五月初旬

(北京二十一日發) 協約의 效力이 發生하는 同時에 北樺太로부터 撤兵할터이나 其完了는 아마 五月初旬이 될듯하며 北樺太에서 日本에게 許容될 石油利權은 五割, 石炭『도왜』炭田은 全部許容하기로 되엿더라

通商關係와 富源開拓의 必要

(莫斯科二十日發) 蘇露政府 今回의 協議는 日本帝國及『소비에트』社會主義聯邦共和國間國交恢復의 基礎的條項을 含한 條約名稱을 選한 것이더라 實業部方面에서는 日本과의 通商開始에 對하야 多大한 注意를 하는 中이다 人民委員會副議長이오 露國東洋商業會議所會頭인 『레야프』氏는 말하되 若吾人이 畢히 協調査中이오 日本各商業會議所와 密接한 共同的關係를 開拓하라고 計劃中이나 交涉成立後에 諸問題의 細目을 決定할터이다 又勞農商船隊의 極東定期航路開始는 兩國의 通商關係를 자못 圓滑하게 할 것이다 하더라

米國은 拘束義務萬無 藏相會議協定問題와 米國國務卿휴스氏의 聲明

(華府十九日發) 十九日上院에서 聯合國藏相會議의 協定에 關한 討議中 國務卿『휴스』氏는 言明하야 가로대 今回巴里의 藏相會議에서 成立된 協約은 米國에 對하야 法理上으로던지 精神的見地에서던지 何等의 義務라고 할 것은 업다 米國은 歐洲問題에 關하야 依然히 拘束될 것이 업고 全혀 自由스러운 處地에 잇다고 하얏더라

大戰과 米鐵損失 十五億弗超過

(華盛頓二十日發) 歐洲大戰中 米國鐵道의 政府管理에 依한 損失은 十五億弗을 超過하야 鐵道管理財政結果의 總決算書를 鐵道總監『데비스』氏로부터 大統領『쿨릿지』氏에게 提出하엿더라

휴스氏意見을 擁護 白堊舘의 大統領意思代辯

(華盛頓二十日發) 白堊舘은 大統領『쿨릿지』氏가 巴里賠償協定에 調印한 것으로 因하야 米國이 道德上, 法律上 歐洲問題의 紛糾한 渦中에 投하지는 안는다는 國務卿『휴스』氏의 意見을 强硬히 擁護함을 示하엿고 大統領은 右調印으로 因하야 米國이 歐洲問題에 捲入하리라는 說을 難視하엿다. 米國上院은 外交委員長『보라』氏가 巴里協約에 關한 『휴스』氏의 意見을 記載한 通信을 上院記錄에 揷入하자고 要求할 時에 비로소 注意를 惹起하엿더라

쫀손氏國務卿聲明을 反駁

(華盛頓十九日發) 加州選出上院議員『쫀손』氏는 國務長官『휴스』氏가 米國은 巴里條約에 依하야 何等歐洲問題에 關與치 안흐면 안될 義務를 課한 바 된 것이 아니요 全혀 自由이라고 聲明함에 答하되 責任잇는 外交家는 다 此에 對하야 『휴스』氏와 全然相反하는 見解를 取한다고 主張하엿더라

新政府는 成功이다 獨逸新首相루터氏演說

(伯林十九日發) 新首相『루터』氏는 議會에서 新政府의 成功을 槪說하엿는데 首相의 演說은 新內閣의 中堅인 右黨各派의 大喝采를 博하엿스나 左黨各派는 新政府를 全然信用하지 아니하엿다 하야 首相의 演說을 冷笑하엿고 共産黨은 嘲笑와 妨害로 此에 應酬하엿더라

토로츠키辭職은 事實 事件은 公式으로 終了

(莫斯科二十日發) 『토로츠키』事件은 이미 公式으로 終了하얏는데 『이스베스차』及 『프라우다』兩新聞은 社說로 本件에 批評을 加하지 안코 單히 『토로츠키』氏辭職發表를 揭載欄에 揭載할 뿐이다 目下의 形便은 共産黨員은 近來係爭中인 諸點에 對하야 公然히 此를 討議할 수는 업스나 大臺共産黨委員은 制裁를 案與케 할 이 업시 이 此等諸點에 決定을 與한 外다 『토로츠키』氏는 아즉 莫斯科에 잇스나 未久에 南方으로 向할 듯하더라

蒙古共産政府組織 純共産主義者에 依하야

(哈爾賓電) 蒙古政府는 純共産主義者로 새로 庫倫에 組織되엿는바 責任者는 다 選擧에 依하야 就任한 것인데 遊牧者 等도 不少하며 人名은 左와 如하더라

大臣 『쳬렌크델지』
『소트』長 國家의 元老
同副 『아롱-』
國民經濟大臣 右同
軍務大臣 『말크셀지세브』
總軍司令官 (露國에서 招聘한 『딸지산』)
軍事 『소비에트』長 『초이발산』 蒙古復興의 大功勞者 『린치노』와 『렌』
(成吉斯汗의 後裔이오 元東臣) 汗王이더니 其稱號를 廢함
致務大臣 『바와, 한』 經濟『소비에트』長 『마가마에푸』
其他司法, 財政及外務의 重要한 大臣은 選擧되야 幹部는 純然히 蒙古人勞動者들이오 其議長은 遊牧者 『젠데렌』가 選出되엿더라

善後會議成立確定과 人民團體代表參加問題

(北京二十日發) 善後會議의 成立이 確定的이 되얏슴으로 孫文氏一派의 民黨도 反對를 그치고 人民團體代表의 參加를 條件으로 하야 贊成할 것을 宣言하게 되엇더니 執政府의 威信과 時間問題로 보아 人民團體代表의 參加要求는 容認키 難하다 하야 國民黨과 折衷中이더라

戰爭防止對策協議 北京의外交團會議

(北京十九日發) 新任佛國公使『마르텔』氏를 加한 外交團은 十九日에 和蘭公使舘에서 會議를 開하고 戰爭防止에 對한 對策을 相議하는 同時에 上海領事團이 十七日에 齊燮元, 孫傳芳兩氏에게 送한 上海市街의 小銃着彈距離內에 在한 戰鬪再開禁止에 關한 通告及軍閥互頭를 租界內에 居住식히지 안는다는 決議를 다 妥當한 것이라 하야 此를 容認하고 上海形勢가 更히 危殆에 瀕하는 時는 再次戰爭防止에 就하야 適宜한 措置를 講究하기로 決定하엿더라

奉天軍續續南下 解散兵을 다시 武裝編入計劃

(北京二十日發) 目下南下中인 張宗昌軍과 齊燮元軍間에 戰端이 開始된 結果 馬廠의 奉天軍은 二十日부터 更히 南下를 開始하엿다 又齊燮者에 上海의 林虎는 租界에 逗入한 結果 武裝을 解除한 軍隊 一萬一千名은 汽船으로 靑島에 送하야 同地에서 解散할터인데 奉天軍에서는 右解散兵을 다시 武裝식혀 奉天軍에 編入하야 戰場으로 送하랴는 計劃이 進捗中이더라

質議는 自廿四日 衆院開議後

(東京電) 休會再開의 衆議院은 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 開할터인대 劈頭加藤首相의 施政方針演說, 幣原外相의 外交方針演說及

新施政方針論戰 社會民主黨總務에 依하야

(벨린二十一日發) 十九日夜에 開會된 獨逸新內閣의 施政方針에 關한 論戰은 二十一日第一로 社會民主黨의 總務『부라-운』博士에 依하야 攻擊이 開始되야 共和政體三大內閣의 首相이엇던 中央黨『월트』博士도 同黨의 左傾에 因하야 同氏는 二年前에 그 內閣倒壞以來로 一言로 그 意見을 發表한 일이 업슨즉 同黨內에서는 依然히 有力한 地位를 保持하고 잇스나 外에 向하야는 演壇에 立하리라고 期待됨으로 會議場의 評判이 되리라더라

藥品取締會議에 日代表米案支持

(제네바二十日發) 國際有害藥品取締會議에서 日本代表杉村陽太郎氏는 演說로 米國의 主張을 支持하야 同會議는 阿片吸飮을 取締할 權能이 잇다는 米國의 主張에 對하야 列國中에 至今外지 援助를 與한 것은 日本代表의 該演說이 처음이더라

佛首相에리오氏 露國大使招宴

(파리二十一日發) 『에리오』佛國首相은 露國大使『크라신』氏를 招宴하얏다 新聞의 報道에 依하면 首相은 『크라신』大使의 抗議에 對한 駐露佛國大使『에르베트』氏의 演說에 對하야 同大使에게 도 辨明을 求하엿더라

敎育年限延長問題와 政友會의 決議

(東京電) 政友會는 普選實施에 件하야 義務敎育年限延長을 遂行함이 急務라 하야 未久에 單獨으로 이 決議案을 提出하야 大波瀾을 捲起하리라더라

政府提出의 三個條法律案

(東京電) 二十日閣議에서 左記法律案은 今期議會에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더라

一、預金法案
一、預金部特別會計法案

右二案은 現在의 預金制度는 弊害가 多함으로 濱口藏相年來의 主張에 依한 預金部를 改造할 것이오

一、裁判所構成法中改正法律案

右는 區裁判所의 權限中 現行法第十四條第一項에 五百圓을 超過치 아니하는 金額又는 價格의 請求라 한 것을 一千圓으로 改한 것이더라

外交官異動은 三月中旬頃發表

(東京電) 行政整理에 基因한 外交官의 大異動은 來三月中旬頃發表될터인데 各大使의 更迭은 左와 如하더라

駐英大使 林權助男(待命)
駐米大使 (四月頃歸朝)
駐佛大使 石井菊次郎子
駐白耳義大使 安達峰一郎
駐伊大使
駐瑞西公使 有吉明
駐白大使

而且亞細亞局長은 大使舘參事官 木村銳市氏가 될 것이오 又日露國交가 回復하는 同時에 兩國이 大使를 交換할 것인바 最初駐露大使로는 本多熊太郎氏가 될 듯하더라

日露條約成立과 朝鮮에及할影響如何

年來懸案이든 日露協約도 今月二十日夜半에 調印이 終了되엿다고 北京電報는 傳한다 日露兩地가 모다 一葦帶水를 接한 我朝鮮으로써 此로 因하야 被하는 影響이 엇더할는지 爲先總督府當局의 意見을 綜合하면 아래와 갓다

政治犯其他에 及할影響은 中村外事課長談

總督府에는 아즉 아모 公報가 업스며 또는 當局으로서 何等研究하여 본 것이 업슴으로 무엇이라 意見을 발할 만한 것이 업다 그러나 通商이 開始되면 따러서 旅客의 往來가 頻繁할 것은 想像할 수 잇스나 그러라고 朝鮮에 무산 多大한 變動이 잇스라

思想宣傳 問題로 말하더라도

至今外지 協約이 成立되지 안햇서서 使入 안한 것도 아니요 協約이 成立된 以後기로 取締가 極難할 것도 업다 다만 朝鮮은 彼의 海蔘威와의 關係가 잇서서 勿論 여러가지를 充分히 講究할 必要는 잇스며 京城其他에 勞農領事의 設置與否는 아직 明言할 수 업스나 一般國交가 恢復된 以上에는 已往帝露國의 前例도 잇스니 依例히 設置되리라고 생각하야 두어도 無妨할가 한다 露領에 잇는 朝鮮人에게 미치는 影響은 此는 大體에 잇서서 政治犯과 政治犯이 아닌 其他로 區別할 수 잇는데

政治犯이 아닌 卽 破廉恥犯

等에 對하야는 日露協約의 成立에 關係가 업시 從來도 勞農國內法으로써 處理하여 왓슬 터인즉 何等影響이 無하겟고 政治犯에 對하야는 協約이 成立되면 日本政府로서 便利한 點이 多할 것이다 그러나 百黨의 條約이 잇다 하더래도 互相眞心誠意로써 處事치 안으면 何等效力이 無한 것이며 如何間 細目協定外지 締結된 後가 아니면 미리 무엇이라고 斷定하여 말할 수 업다 云云

一着에旅券問題 田中警察課長談

그러한 重大問題는 우리가 튼 局外者가 意見을 發表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第一着으로 問題될 것은 旅券인데 勞農革命以後 至今外지는 日本當局에서 旅券을 下付하더래도 勞農政府에서는 此의 效力을 認치 안하얏섯는데 今後國交가 恢復되면 互相旅券을 下付하여야 하겟고 다음으로 露領在住朝鮮人問題인데 從來의 例를 보면 彼地도 亦是獨立團體와 社會主義團體의 兩種이 잇스나 前者에 對하야는 勞農政府가 能히 從來부터 何等拘束할 이 업섯는데 協約이 成立되면 勿論 一層 그네의 處地가 困難할 것이다 그러나 露領에는 獨立團은 그다지 多數가 아니오 大部分은 主義團體인데 此는 그 自體가 勞農政府의 理想과 合致한 故로 將來取締에 對하야 아모리 協約이 成立된다 하더래도

如何方法

을 取함이 可할는지 아직 斷定키 難하다 그러나 日本政府를 顚覆하거나 國體를 破壞하는 等의 計劃이 잇스면 그는 朝鮮人, 日本人을 區別할 것 업시 아모리 犯行地가 日本領土以外라 하더래도 依法處罰할 것은 새로히 日露協約을 待할 것도 업다 또 朝鮮內에 若干 잇는 白露殘黨의 處置問題인데 此에 對하야는 從來에도 赤露로부터 露還을 希望하여도 大部分은 應치 안는 模樣이엿다 云云

日露貿易調査 近近研究에着手 安達商工課長談

最近의 日露貿易額은 十二年에 輸出二十七萬八千四百八十五圓 輸入八十五萬五千百五十六圓, 十一年은 輸出五十萬一千五百六十四圓, 輸入八十六萬四千二百二十八圓인데 十, 九兩年은 勿論 此의 倍以上이엿다 勿論 此는 西伯利亞駐屯軍에 對한 輸出의 影響이 多하엿스며 十三年의 貿易額은 아즉 判明치 안으나 十二年과 大差가 無할듯하다 그런데 日露通商이 開始된다 하면 西伯利亞等에 在한 鑛山權, 漁業權의 獲得으로 因하야 多大한 投資를 行하게 되며 金融의 潤澤이 購買力을 增大케 하는 故로 輸出貿易이 繁盛할 것은 當然한 바이나 그도 엇던 程度外지 及할 與否는 人氣에 關係되는 故로 豫斷할 수는 업다 總督府에서는 今月부터 十六名의 囑託을 派遣하야 露中貿易의 調査를 始作하엿고 近近 調査材料를 蒐集하야 對露貿易을 研究하라고 思하는 中이다 云云 그런데 朝鮮으로부터 露國에 輸出되는 物品은 十二年度에 據하면 이十萬八千百二十一圓, 穀米二萬六千五百八十八圓, 綿絲布五萬八千四百十七圓等이며 生魚類, 乾鹽魚, 玄米, 紫菜等도 十一年前外지는 相當한 額에 達하엿는데 十三年度는 皆無이엇는바 此等은 交涉이 成立되는 同時에 輸出될 豫算이 充分하다 輸入에는 生鮭五十八萬三千八百三十九圓, 乾魚七萬六千五百六十八圓, 昆布가 五萬七千五百二十七圓等의 水産物이 主要한 것이다

郵便條約改正은 日本에大利益 高橋遞信局庶務課長談

旣報萬國郵便聯合會議에서의 重要問題는 郵便條約의 改正에 잇다 從來의 條約에 依하면 郵便, 小包, 爲替, 振替貯金, 籍物價格表記 等의 各個別로 規定에 分類된 關係上 其間往往撞着을 이르키어 複雜한 交涉을 要하는 境遇가 發生하야 頗히 困難한 問題가 이러남으로 此의 改正을 提議하얏는데 其結果 郵便을 主體로 하야 從來에 分類된 諸規定을 統一的으로 一括한 新條約이 締結됨에 至하얏는데 其內容에 至하야는 爲主히 事務方面의 細部에 亙한 것으로 屢屢히 問題가 된

郵便料金

의 遞減이며 遞送料의 低減에 就하야는 매우 議論도 잇섯스나 結局 今回도 有耶無耶로 終結됨에 至치 못하야 新條約의 認定된 바가 되지 못하얏다 그리고 日本提案에 依한 燐寸이 新히 小包郵便取扱品目에 挿入된 것은 輸出國인 日本에 取하야 爲先成功이라 할 수 잇스며 露西亞가 郵便聯盟에 加盟한 것은 當然한 일로 各國共히 異議가 업시 正式으로 承認한 以來 郵便物의 交換도 復活되는 中인 바 日本에서는 아즉 復活되지 못하얏스나 此는 國交上 不得已한 일로 郵便聯盟과는 別問題이다 그러나 兩國의 交涉도 解決하게 되얏스니 則自然 郵便交換도 復活하게 되리라더라

在外正貨拂下와 田大藏次官談

(東京電) 今回橫濱銀行으로부터 爲替資金이라 하야 在外正貨의 拂下請求가 잇섯는데 此에 應하야 約六百萬圓의 拂下를 實行하기로 되엿다 또 拂下價格은 正金銀行이 他銀行으로 轉賣할 것의 補助用分에 就하야는 今回及今後에 分을 合하야 그 賣却時勢와 同一時勢로 拂下할 것임으로 正金銀行은 此拂下에 依한 利益을 得하지 안을 計算이더라

那覇에國立測候所 基地買收契約成立

(那覇電) 國費四十萬圓으로 沖繩縣那覇市內에 設立될 國立測候所의 基地는 地主와의 間에 無事히 買收契約이 成立되엿다 何如間 氣壓의 本場인 故로 各測候所, 氣象에 速報的重要位置에 在한 것인데 其建築工事는 本年夏外지에 竣功되리라더라

人事消息

▲李源甫氏(新京畿道刑事課長) 二十一日新任禮辭次本社來訪

八面鋒

○不知何歲月될것갓던, 日露交涉이, 突然調印됨을 報한다 內容은, 아직 未詳커니와, 잡바저도, 코깨지는 우리處地에 好消息되기야, 바랄수잇스랴

○京城府內普通學校에, 二部制實施를 講究中이라한다, 인제라도, 速히 實施하라, 入學못해 우는 아이가, 경성드뭇한이 뻐이다,

○北村거리에는, 蕭蕭氣分이 濃厚하다, 사글세 빈 집 한 그 中에, 한숨과 눈물은, 얼마런고,

調印된日露條約大要 及議定書內容槪要

(北京二十日發) 二十日夜에 調印된 日露條約의 大要는 左와 如하더라

大日本帝國과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聯邦國은 兩國의 善隣關係及經濟的協力을 助長하기 爲하야 協約을 締結하기로 하고 兩國代表는 相互委任狀을 示하야 全權을 確認한 後에 協定하다

一、兩締約國은 本協約成立과 共히 外交及通商關係를 開設할 것

二、『포스마스』條約의 完全한 存續을 承認하고 그 以外의 條約, 協約, 協定에 就하야는 追後兩國間에서 開할 會議에 依하야 修正又는 廢棄하고 『포스마스』條約에 關聯한 漁業協約은 此를 修正함에 同意함

三、左記原則에 依한 通商航海條約의 締結에 同意함

兩國人民은 當該國의 法律에 依하야 入國, 旅行, 居住의 完全한 自由及生命財産의 完全한 保護를 享有할 事

兩國의 國交經濟其他의 發達을 妨害하는 如한 禁止制限賦課等의 差別的規程을 하지 안코 互로 通商航海工業은 最惠國의 待遇를 할 것에 同意함

通商航海에 關한 特別規程은 必要에 應하야 臨時協議함

四、兩國의 國家及政治의 形式을 排하거나 或은 此를 破壞코자 企圖하는 一切言動을 禁止함

◇日代表 芳澤謙吉氏

◇露代表 카라한氏

議定書大要

一、兩國은 自國領土內에 在한 相手國의 大使舘及領事舘에 屬한 動産不動産은 相手國의 所有에 移轉할 事를 保證함

二、日本政府及人民의 有한 前露國政府가 保證한 公債並債權은 後日兩國政府의 協議에 依하야 處理함

三、日本軍隊는 本議定書의 效力發生日로부터 北樺太에서 完全히 撤退함

四、露國은 北樺太油田의 地域合箇에 就하야 六十%의 採掘權을 日本側에 許容하고 又日本當業者에게 借地될 地域을 決定키 爲하야 各油田은 基盤型으로 區劃한 後 其中에서 借地地區五十%를 包含케 함

五、露國政府는 日本政府의 推薦하는 日本當業者에게 北樺太東海岸에서 地域一千平方露里十個年의 調査權을 許容함에 同意하고 日本當業者가 調査한 結果 設定하기 前에 油田地域中 五十%의 採掘權을 許容함에 同意함

六、露國은 日本政府의 推薦하는 日本人當業者에게 左記開發權을 許容함에 同意함

前封鎖區域의 南部炭田中 三十%를 含한 地域으로서 現에 日本이 採掘中部分을 含한 것及特別區域을 含한 前封鎖區域의 炭田其他未開發炭田을 日本政府의 推薦하는 日本當業者에게 許容함에 同意하고 油田炭田採掘權의 期間은 四十年乃至五十年으로 할 事

七、日本政府의 推薦하는 日本人當業者는 每年露國政府에 對하야 利權의 保證으로 油田에 對하야는 總生産量年産額五十萬噸以下의 境遇는 五十%, 五十萬噸以上百萬噸以下의 境遇는 十%, 産額百萬噸以上의 境遇는 十五%, 炭田의 境遇는 其報酬金은 總産額의 十五%를 提供할 事 利權에 就하야는 右以外何等制限이 無함

鐵筆寓眞 投稿歡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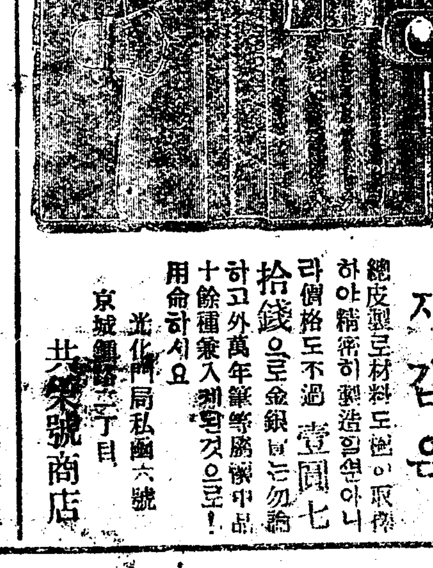
日米戰爭論의 反響, 日米戰爭論을 鼓吹하던, 米國의 好戰論者, 兩院議員으로부터, 아픈 볼건의 선사를 바닷다 (뉴욕, 월드紙)

腎氣不足인諸氏여
腎經이 衰弱하면 百病이 具出은 世所共知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라 百發百中의 眞正한 快效를 見하시려거던 二錢郵票를 封入하야 照會하시면 自宅療法을 無料로 進呈하겟습니다
京城西大門外孔德里一七○ 德恒泰藥業部

胃腸新藥 活命液
胃腸病은 醫學上如何한 病狀인가
▲大甁 五甁十圓 ▲大甁 三甁六圓二十錢 ▲大甁 一甁二圓二十錢 ▲中甁 一甁一圓五十錢
電氣即治液 淋疾特效藥 梅毒消滅球
京城府仁寺洞二百四番地(鍾路里門內) 合名會社 再生堂藥房 振替京城四七五八番

⊠ 치병환자의 행복
金床, 架工齒, 金冠, 金インレー 白金アマルカム, 金充, ゴム義齒其他
京城鍾路二丁目壹番地(黃土峴) (京城醫院樓上)
京城齒科 口腔外科 醫院 電話光化門壹壹壹八番

지갑은
總皮製로 材料도 精選하야 精密히 製造함 價格도 不過 壹圓七拾錢으로 十餘種兼入케 된 것으로 用命하시요
京城鍾路二丁目 光化門局私函六號 共榮號商店



公認 日本自動車學校
自動車에 有志한 人은 來校見學하오 無經驗者를 實地本位懇切養成함
東洋第一 東京蒲田驛前 (葉書로申込次第飛行機自動車案內學則八十頁送呈)

地方代理店長의 職
每月手當金三十圓以上 外利益附 (但京城市內는除함)
有希望者는 自己資産程度를 明記하고 金壹圓을 添附申請하시면 見本과 詳細를 送呈함
京城府竹添町三丁目四四五 東洋製藥株式會社 販賣店

日露交涉成立과 朝鮮에미치는影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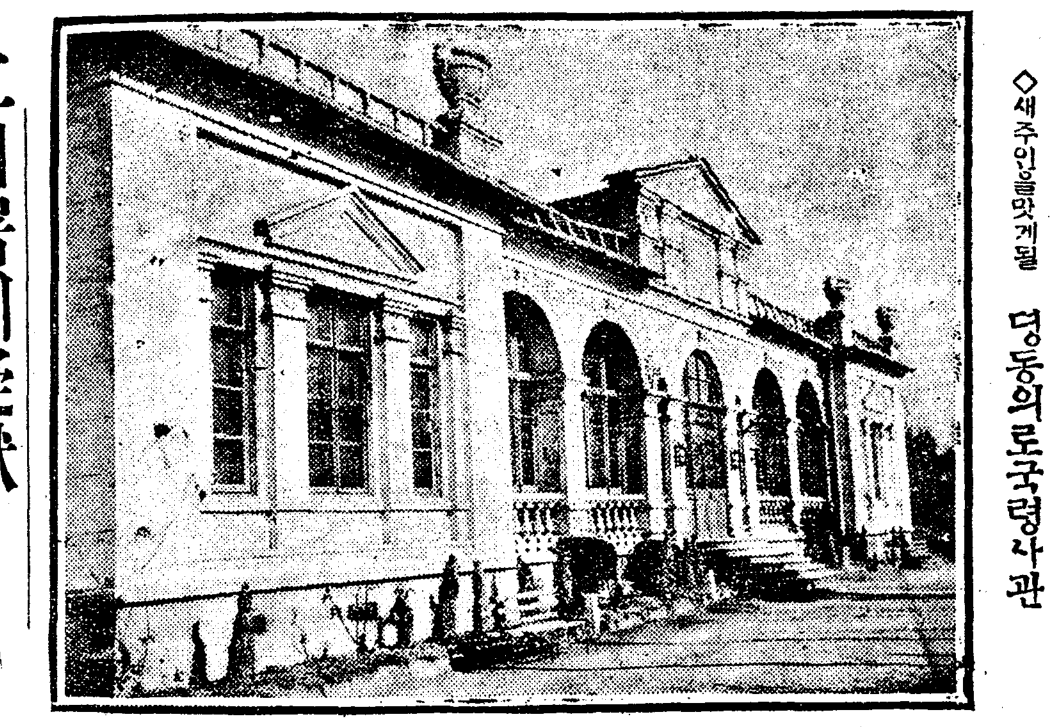
로령에잇는동포는엇더하고 조선내디에는엇더할것인가

장춘회의(長春會議) 이래로사년동안 긴세월을두고 대련(大連)동경(東京)의 공식비공식의회의를 거듭하야 작년부터중국북경(北京)에서 아라사의'카라한'과일본의'방택(芳澤)'사이에열린일로교섭(日露交涉)은이십일밤중에 이르러 긔본조약(基本條約)을 조인하엿다는 북경뎐보가잇다 이번조약의 내용이과연엇더한지는 아즉알기 어려우나 조약이톄결됨을 따라아라사령에 잇는수백만의 동포에게는엇더한 영향이 미치고조선안에사는조선사람에게는 엇더한 영향이잇슬가 할것은 중대한문뎨의하나이다 일본동경에로농로서아의붉은긔발이날리게될때라경성에도다치어드린영사관(領事館)이열린다하면 우리의생활에는엇더한관계가잇슬것인가 이는북경조약의내용이공개되기전에는 아즉엇언키어려우나 엇지하엿던지 우리와도 중대한관계가잇슬것은사실일것이다

白色領事는無用

도라가게될것을말하는혜써

북경의 일로교섭이 성립되얏다는보도에대하야 시내 뎡동에잇는 로국령사(露國領事)'혜프룰러'씨는 시름업시말하되 나는지금 주인업는 령사이다 로동정부와는 아모관계가 업슴으로 무슨공식의 보도를밧지못하얏다 지금조인이 사실이라면 일본에 머물러잇는 대사관참사장(參事長)이렴려하면서 자연히 우리도드러가게될것이라 고말하면서얼골에는 맹맹한빗이 나타나보이더라



◇새주인을맛게될 뎡동의로국령사관

仁川署에疑獄?

사법주임이아편범인에게 되물을바다먹엇다는풍설

인천서(仁川署)사법계순사청뎐(淸田)모와 중국인농회장(中國人農會長)왕모가결탁하야 수년전부터 중국인 아편밀수입자와 기타범죄인에게 수천원의 뢰물(賂物)을바다먹엇다는말을모처에 드른한사람이잇는데 사실의 내용이복잡하고 또 회수가만흠으로 그전부를긔재할수 업스나 그중의하나를소개하면작년 십이월경에시내모양행(某洋行)고간직이중국인모는양사(洋絲)팔백원어치되는것을 길취해내여서 파라먹은것을 권고왕모와 청권이가안후 그범인에게 만흔뢰물을 주지아니하면잡아가겟다고 협박한후 현금삼백원을바다서 난우어 먹엇다는등별별 추악하고 놀랍만한사실이 만흐며 두서에진힌 금액만하여도사천칠백원이란 큰 금액이라더라

大森署長談

아즉사실여부는모르나 조사중임은분명하다고 권긔문데에대하야 대삼인천서장(大森仁川署長)의 말을 드르면 얼마전에 그러한 소문이 잇섯슴으로 만일사실이면 큰일이 낫가곳됴사를식이엇는데아직 사실여부는 모르지요 무슨감정문데로얽거너으려고무고를 하엿는지도 모르겟슴니다 말하더라

某洋行側의말

무엇이라고할는지 하기어렵슴니다

별항긔재한모양행조난사건에대하야 그양행사무원 중촌(中村)씨의말을드른번 마침주인도업슴으로더려 여러가지사정상엇더타고확답할수는 업슴니다다만귀서경에무슨말을드른듯하기는합니다 하고어름어름하고대답하기를꺼리 하더라(인천)

今年日氣

북조선은칩고 남조선은따뜻

이번 겨울은 의외에 따뜻하다 그리하야 하층생활하는 이에게는큰복음이라고도 할수잇다 요사히 긔후에대하야 인천관측소(仁川觀測所)원의말을드르면작년십이월중에 평균 온도는례년보다 약일도나 따뜻하엿고 지금까지도 그대로계속중인바 그대데원인은 이번겨울의고긔압(高氣壓)은비교뎍순조로 왕래하야 그쪽위를 나타내이지 아니하는것과 비교뎍개인날이 만엇슴으로조선 중부이남은 매우따뜻하야서 큰강에는 결빙을보지못하는외와 현상을 나타내엿는데북조선디방 측국경방면은 상당히 추어서 삼십도이상의 치위를계속하는중이라고말하더라

溫和로被害한

인천의상계

매년겨울이되면 조선서해안(西海岸)은 일개월내지 이개월식결빙이되야 진남포(鎭南浦)인천(仁川)간과인천과해주(海州)간해주와 진남포간의 긔선항해를하지못하는터이여서 항해도와충청도디방의 곡물(穀物)은 며개 평양(平壤)으로 갈물건이라도 인천으로집합되며 진남포나평양가지로 리익되는점이 만엇다고로 인천은그중간에잇서서 여러가지로 긔차편으로발송되는 그중에도각물산객주(物産客主)와운송업과로동자들은직접간접의리해가큰터인바이번겨울에는 조선서 해안에는 얼음장하나를볼수업슴만치일긔가온난함으로 인천에인천을거처어오고가고하든 물화는 긔선편으로 직접왕래를 할으로 인천의이번 겨울은여간불경긔가 아니엇다 그러고요사이일긔로보면 그대로 겨울을지내일듯하다더라(인천)

異域過歲慰勞로

형설회의력사회

이역에잇는 우리류학생은 깨창한등에 글읽는외로이외에 명절이와도 명절가러 지낼수업것다금번형설회(螢雪會)에서는음력정월을긔회삼어 서로 위안을도모키위하야 윳노는회를 다음과가티열터이라더라(동경)

時日 一月二十五日
場所 東京府下戶塚町二四五 螢雪會

軍資募集한三名

신의주우편국에서위톄찻다가 미리잡히든경관에게모다톄포

지나간십륙일오후한시경에신의주우편국(新義州郵便局)에서류치위톄(留置爲替)를찻다가신의주서 고등계와사법계원에게 엇더수상한 세사람이 톄포되엿는데사건의 내용은극히 비밀에부침으로 자세히는 알수업스나탐문한바에의하면 그들은상해림시정부원정○○(上海臨時政府員鄭○○)과 조○○(趙○○)외한명인데 작년십이월 이십구일에룡천군양광면 선화동 독고단(龍川郡楊光面善化洞獨孤煙)의 집에가서군자금으로현금이백원을강탈하고또삼백원을신의주우편국에류치위톄(留置爲替)로보내기를약조하엿다가 지나간십륙일오후한시경에 그돈을 차즈러 갓섯는데 이내용을안 신의주서고등계와사법계원들은 미리부터 그곳에가서 잠복하고 잇다가 고등계와사법계원이 그외가리데포 하얏는데 아즉도 각처로활동 하는것을보면 련두자가만흔듯 하다더라(신의주)

西門署에脅迫狀

종종협박장이들어온다고

시내서대문 경찰서에는 요사이 각금여러가지의 협박문(脅迫文)이드러오는데 그내용인즉 너를언제던지 죽일터이니 그리알고잇거라는 등의 미인바동서고등계(高等係)에서는 그출처를 알지못하야백방으로 됴사에착수하엿스나 아직아모 단서를엇지못하엿다더라

出生死亡이다多數인 京城의日本人

경성부령의통계에의한수자

부내에 거주하는 조선인과일본인의 생사비률(生死比率)을대조하여보건 작년일년동안에 조선사람으로 태여난 어린아이가 팔천사백 오십명이오 일본사람으로태여난 어린아이가 이천십사명이 잇섯다 이를년히증가하는 증가률로보건대 조선사람은○、一五六이오 일본사람은○、一七○이라한다 이로보면일본사람이 비교뎍만히 생산을하는것이오 그반면에 사망자의 수를보건대 작년일년 동안에부내에서죽은 조선사람이 이백오십사명이오 일본사람이 이배오십이라 이를그년년히 느리가는증가률로 보건대 조선사람은○、○○九라는 극히 적은 비률이오일본사람은 ○、一九三이라는 상당히만흔 비률이라 그런즉결국일본사람은 낫키는 조선사람보다비교뎍으로 만히나흐나 죽는바면으로보면 조선사람보다 일본사람이 만히죽는 세음이라한다

成川에强盜

작두로협박 현금이원을강탈

성천군숭중면 남양리(成川郡陵中面南陽里)에는 지난십오일오후십일시경에 성천읍내 모의집에강도가 칠입하야 작두를가지고주인을 위협하야 현금이원과기타물품을 강탈도주 하엿다는데범인은 잡지못 하얏다더라 (성천)

平壤서도聲討計劃

시국대동단강연은뒤죽박죽

홍치교도 림경호(林敬鎬)등의소위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이라는일행은 지난이십일오후부터 평양공회당에서강연을시작하엿는데 청중은 전부가홍치교도의 상투쟁이 셋이고교도의 예는 불과십여명의 청중이잇섯슬뿐이나 간곳마다 매를마저본 엇탑에 그러함인지 무복마다등치돌든 상투쟁이와 돈에팔려온 물건들의 경계가 심한우에환혁대를 섬작자가 연단뒤에서경계하는데는 참말시국 대동단이 아니고서는 전부후무할 일인대연사로는 림경호리풍재 채긔두(林敬鎬李豐載蔡基斗)등세명이번가러가며 거짓된 연설을 이러고하엿스나 도기실흔 드러가거는청중의 욕설도말도번번히 못하고쫏겨 드러갓다는데 원간 보련교의 성토회를열고 홍치교 박멸운동을 시작한다더라(평양)

勞働教育討議範圍

삼월하순에

경성에서개최한다

부내서대문뎡(西大門町)이뎡목칠번디에잇는 조선로동교육회에서 개최할 전조선로동교육자대회(全朝鮮勞働教育者大會)는오는삼월이십구일부터 사흘동안 조선로동교육회안에서 열리라는데 대회에 참석코저하는긔관이나 개인의자격은 로동자교육에 종사하거나 그와근사한사업에 종사하는 긔관의대표자와 개인인데 개인은대표자의갓는바 발언권(發言權)은 업다한다 이대회에참가코저하는 긔관의대표나 개인은 회비(긔관의대표는삼원、개인은일원)를첨부하여오는삼월십일까지로동교육회로 신청하여야되리라는데 대회의 토의범위는 아래와갓다한다

一、勞働教育根本方針、幼年勞働者教育과壯年勞働者教育、農村勞働者教育、都市勞働者教育、鑛山勞働者教育、婦女勞働者教育、勞働者子女教育、勞働教育機關維持、擴張、增設、勞働教育狀況調査、勞働教育教科書、勞働教育機關聯絡、勞働教育者聯絡等諸問題에關한件等

二、其他事項

千餘名의委任狀에

확실히드러난중간배협잡 북률면사건과동척당국자

긔보=북률면소작대표(北栗面小作代表)가 다시뎨삼차교섭차로 상경하야 뎨일착의교섭을한결과는 작지보도와 갓거니와그간사리원지뎜장(沙里院支店長)과 북률면주재소(北栗面駐在所)장들이 중간에다니며서경성지뎜에다가 무슨대표가 아니라개인행동이니 또는조선 사람중에서 동척소작디를 경작치안켓다고 함으로 소작권을회수하엿느니 하며도모지 얼토당토아니 한무고로서교섭을 방해하는바 이번가지온 천여명소작인의 위임장(委任狀)은 중간이 안된 간악배들의거짓말를폭로식히는동시에 경성지뎜책임자는 이에대하야오래동안속은줄을찰고아모조록 북률면민의 요구가잘해결되도록노력하겟다하며더욱이 이런사건이 생겨서 소작조합가든것이나타나게된것은자긔네의실책인줄로 생각한다고 말한다더라

故國江山이그리워

남의꾀임에속아아편장사 본뎡서에잡혀잇는윤춘학

본적을로령(露領)'쪽라다이'는에두고시내간동(諫洞)팔십팔번디에 안성경(安成京)의집에서 류숙하든윤춘학(尹春鶴)(四○)은아편(阿片)삼천여원어치를가지고시내에 드러와서팔매하라다가 뎌칠천 본뎡경찰서에 데포되어방금엄중취됴중이라는데 그에게는 경관도 동정할만 한사정이잇다 그는세살에고국을떠나 멀리로령으로표류하야가서 이십여년 역풍편의 가진서름을 바더가며 춘풍추우사십년동안을 사려오는동안에 어느덧 부모를여희고 얼마전부터 공산제도가실시되는덕분에 겨우집간이나 의지하고 농사를지어서근근히 생활을니어가며 향상 고국강산이 그리워서언제든지 한번대하기를 원하엿스나 본래생활의 여유가업슴으로고국을 밧분활동이업서서 매양유의막수의 한탄을 먼치못하여오든중 하로는 함경북도경성군 주북면칠향리(咸北鏡城郡朱北面七鄕里)김성세(金成世)(四一)라는사람이 차저와서 아편을가지고 조선으로도가면 막대한리익을 어들수가잇느니 팔기가용이하니하는등 여러가지 감언리설로 꾀이는고로 권긔윤춘학은그러지안해도항상고국강산을한번보기가 원이엇스나 힘이업서서뜻을이루지 못하는것이 원한이든차에 그와가튼

반가운말

이돌림으로비용들이지안코 고국강산을 구경할것을 깃버하야 자긔집에먹이든소(牛) 한마리와 도야지두마리를팔고 약간저축하엿든 돈량으로

徐昌務等은一審대로

네명은십이년、한명은팔년

본보에두어번 보도한바 북간도각디에서 군자금을모집하며 됨과 친일파를 총으로쏘아 부상케한서창무(徐昌務)외네사람에대한복심판결이 이십일일오전 열한시경에 경성복심법원산구(山口)판사로부터언도되엿는데 판결은 전부일심에정한대로서창무 박창환(朴昌煥)반룡환(潘龍煥) 김병구(金炳九)등네사람은징역십이년이오 김덕연(金德淵)은 징역팔년이되엇다더라

五圓印紙僞造

범인한명데포

황해도(黃海道)출생으로일뎡한주소가업는김문배(金文培)(三一)라는자는 오원인지(五圓印紙)를교묘히위됴하야 가지고 디방으로도라다니며 만흔사람을속히여 팔엇다는바 이를탐문한 경성본뎡경찰서(本町警察署)에서는 지난십팔일동에 비상선을느리고엄범

白米를投棄하고

도주중에데포

일뎡한주소가업는 리태룡(李太龍)은 이십일밤열시경에 시내왜성대(倭城臺)파출소압으로 백미한말을가지고 지나가는 것을파출소원이 수상히보고 곳조사하랴한즉 권긔백미를 내어버리고도주하는고로 순사가 추격하야 겨우한후 데포하엿다는

英國軍事調査員

경성에와서여러가지를됴사중

인도주재(印度駐在)영국륙군보병대위(英國陸軍步兵大尉)'에·페·알·라무리'씨는조선안에서설뇌여잇는군사정황을시찰키위하야 얼마전에 입경하여 방금시내뎡동(貞洞)에잇는영국령사관(領事館)에머물러잇으면서 각방면의됴사에착수하여다는데 금월말에는인도로다시도라갈예뎡이라더라

餓口를我求로

경찰의간섭으로 일홈을고치엇다

대구에서 새로아구동맹(餓口同盟)이창립되엇다함은 이미보도하얏거니와 지난십일밤에 창립총회를 합예명이든바 무슨리유인지 경찰당국의금지로 인하야예정대로 하지못하고 부득이단데의 일홈을고치엇는데 다만한 문자만 고치고우는동일한 아구동맹(我求同盟)이라하야 오는이십오일 오후일곱시 부내덕산뎡(德山町)甲삼십일번디 리상소(李相昇)군의집에서다시총회를개최할터이라더라(대구)

一月會講演

창립긔념으로

동경에잇는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단데일월회(一月會)가 조직되엿다함은 이미보도한 바어니와 십구일오후륙시에 동경부하호총뎡(東京府下戶塚町)'스코트·호ー루'에서 그회창립을긔념하기위하야 대강연회를 열엇는데 연사는다음과 갓더라 (동경)

演士 安光泉、金世淵、金泳楠 李如星、劉榮俊

演伎座燒失

이십일동경화재

이십일오후여덟시반 동경 적판류지(赤坂溜池)연기좌(演伎座)에서기소부근에서 불이나서 연기를고 동일시경에 진화되엿는데 택뎐정이랑(澤田正二郞)의일행이 개연중이엇슴으로대소동이일어낫스나 관객의 사상은업것스며 순사와 소방대중에서는마츠너 칠명의 부상자를 내엇고손해는약오십만원가량이라더라(동경뎐보)

官造代償運動에

道廳移轉防止로부터 진주서민의운동은박귀엇다

경남도령이뎐 방지(慶南道廳移轉防止)동맹회 간부회의는이미보도한바와 가티지난 십팔일오후네시 진주금융조합(晉州金融組合)이층우산에서 림시좌장청수좌태랑(淸水佐太郞)씨사회로 계속개회하고 출석뎐명을한바 조선인편 반덕환(潘德煥)씨외 칠인일본인편청수씨외 팔인이 출석하야 순서에따라 도령이뎐방지를 적극뎍으로하기위하야 일본동경의회(東京議會)에까지 위원을 파송할가 그러케하면 총독부의감정을더상할뿐이니 진주구제책(救濟策)이나 충분히연구하야대상(代償)을 요구할가 하는두덤으로간론을박 의정은니장시간 계속되야 회석은 한참논요하야 다가결국 동경까지 위원을파송하자는의론을취하얏스나경남경찰부의 간섭으로 그결의는 취소(取消)되고 대상조건문데를 취하기로결뎡연구하기로하고 동맹회는 폐회하얏다는데 진주대상 운동은관조운동(官造運動)이라고일반의비난이만타더라

海州麵工의罷業

품삯올려달라고세를알고 주인편에서먼저소동하야

이십일일아츰해주(海州)에잇는 아홉곳국수집중에여덟곳에고용되야잇는 사람약백명은 동맹파공을하야 마츰멱년팔을 격하겟는데 그리유인즉 종래의국수집인부들은 한명에 구원팔원두종류의월급을밧든중 그들은그월급으로는살수업다는뜻으로상의가잇서서 음력년말에가지는 그냥지내고 새해부터는 구원밧든사람은 십일원으로 팔원밧든사람은십원으로 월급을올려달라기로 결의하얏는데 이소문을드른인부들은 마츰내이십일일 아츰부터 동맹파업을한것이라더라(해주뎐화)

姜宅鎭氏拘引

례천서에

조선로농총동맹상무집행위원강택진(朝鮮勞農總同盟常務執行委員姜宅鎭)씨는지난십일일에경북례천(慶北醴泉)경찰서에구인되엿는데 그리유는 경북사회운동자간친회(慶北社會運動者懇親會)발긔회에 참석하엿다는것이나 리유가 대단히 모호함으로 로동계에서는 일반의 비난이만타더라

小兒燒死

사돈집의실화로팔구권구가걸인

지난팔일 오전여섯시경에 경남창원군 진동면교동리(昌原郡鎭東面校洞里)윤도선(尹道善)의집에 불이낫는데 모든가장즙을 태여바리고 또한사람하든 세살된손녀조차 그무서운불길에 무참히 태여죽이고설상가상으로 팔구인의 식구와가려일시걸인이 되야 도로에서방황하는 참담한비운을 면치못하게되얏다는데 그불난 원인을자세히도건대 그날그이웃에사는 사돈집헛간에 불이이러나 그나서풍찬로숙을 하게된 윤씨가족의정경은 누구나 다또거운눈물을뿌려동정 아니할수 업다더라(마산)

便所에서强奪

동경연극좌강도

요사히새로히 개장된 동경가무기좌(東京歌舞伎座)에서이십일하오여섯시경 은좌목촌(銀座木村)'방'가주인의동생 목촌총조(木村總助)의처'에이'(二八)가부인변소속에서삼십세가량의양복입은 남자를맛나 몸을주이고돈내라는바람에 현금 사십여원든지갑을내여주엇다더라(동경뎐보)

市井雜事

◇電車에서落傷 이십일오후열시오십분경에 룡산련병뎡(練兵町)으로부터 구룡산을향하여가든뎐차 원뎡이뎡목(元町二丁目)오번디 압흘막통과할즈음에영뎡(榮町)팔번디사는 삼뎐량범(三田良範)(四二)이가선린상업학교야학과(善商夜學科)를마티고도라가든길에 그뎐차를타고 운뎐대에 섯다가 잘못되여떠러저서머리를부상하여엿는데 이뎡목십자병원(十字病院)에입원치료중이라고

◇窃盜二名 시내안국동(安國洞)일백륙십오번디 리명규(李命圭)(二八)와가튼동리조복동(趙福童)(一八)등 두명은이십일밤절도죄로 종로서에 인치되얏다고

◇自轉車와衝突負傷 이십일오후륙시경에 룡산원뎡이뎡목(元町二丁目)구십번디압길거리에서대도뎡(大島町)사십번디사는 승우아태랑(勝又雅太郞)(三六)의탄자뎐차에 원뎡이뎡목칠십륙번디 한영문(韓永文)이가부딋처 하수도에 떠러저서일시는인사불성에 이르럿섯는데원인은자뎐거 탓든사람의 부주의임으로 룡산서에서는 부상자의사일간치료비를 부담식혓다고

饑饉義金

구제회에온바

▲平原郡葛山漢友會一圓五十錢▲春川南監理敎會아츰祈禱會一同六圓九十錢▲市內漢城圖書會社內蔡洙般三圓

종명자

▲이래 커래 죽는사람은 조선 사람뿐이다 양력과세 음력과세 일년에두번 과세하기에 참으로 눈코뜰수가 업시 죽을지경이다 조르거든 음력에는 그만두든지 하엿스면그래도 좀나으련만은 양력에 다조르니밧는 사람은두번나 조흔편이가 잇스러니와 주는사람은 죽을지경 일것이다 일년에 두번 과세하는통에 돈밧을사람만 수가생기는 판이다 ▲그러고보니 그것도 돈잇는사람을위하야 생긴듯하다 ▲그것은이라지금 형편으로는 모든것이돈잇는 사람을위하야 생긴제도인듯하다▲졸리느니 재촉하느니하는사람들은오히려팔자가조흔편이다▲어린아들은딸리고거리로유리하며귀한에못견대어우는것들의정경은엇지하다▲소위설날이라고떡국은고사하고조밥도업는것들을엇지하나

運動競技

日本蹴球經過

中學國의準決勝

大每主催의第九回全日本蹴球大會는十七日부터旣報한場所에서行한바아式中等學校準決勝戰은六對零으로神戶一中이京師를익이고一對零으로御影이池師를익이엇다

英蘭蹴球勝

對『웰스』12對6으로

英國『잉글랜드』對『웰스』라式蹴球戰은本日『트위트함』에서擧行한바十二對六으로英蘭이勝利하얏다고(倫敦國際十七日發)

徽文氷上競技

二十三日漢江에서

市民徽文高普第一回校內氷上競技大會는二十三日午後一時부터漢江人道橋下에서擧行되엿다고

大每A七立教

一大每對立教野球戰은十八日C.寶塚球場에서行한바七A對一로大每勝

『거퓌』選手權

=日本스켓會主催의第三回全日本『퓌거스켓』選手權大會는十八日諏訪湖에서行한바一等은小澤(上諏訪)으로選手權을잡앗다

消化と毒けし 仁丹

한알만먹어도 仁丹元氣는 꼿치위를 征服한다

淋病梅毒 根治新藥

金言 나에게착한일을하는자는나에게착함을가르치는자이다

小說及感想集 青春의曠野

春城 盧子泳 作

피만흔青春의苦悶과彷徨!
永遠한憧憬과讚美!
出版數日에、忽然再版出來!
朝鮮의처음인、出版界大記錄

이러케熱狂的歡迎을밧는册이또다시잇는가? 記者生活을떠난作者가、沈默一個年에、全熱情과精誠을다하야、創作한金文字이니、沈痛과華麗와雄渾을다한、眞實한內容이、期於히젊은이들의어지、눈물을아니짜내고말냐!

…◇目次及內容紹介◇…

不滅의眞理(小說) 예수교牧師의딸과、엇던新個人主義者사이에얼킨사랑。하나님은죽엇다예수교는낡어젓다。사람이차저야할、참된眞理는、「自我實現」에잇다하고。예수敎의、모든敎理를反對한후、두사람이米國으로가는六十페지의小說이니、宗敎박멸。無神論主張의、革命小說이다……。

自殺者의手記(小說) 理想을일코、사랑을일코、人生을疑心하고、生活에싸기는、엇던청년의自殺한內容이니、現代우리社會의悲慘한事情을그대로퍼는、三十頁의短篇小說。

못지는南國에(紀行) 못지는晩春에、京城서馬山灣까지가는、長篇紀行이니、南國의情調와함께、回想。讚美。咀呪。울음等。우리청춘이들의설음을그대로쏘다놋는、金文字。

青春의曠野(想華) 못업시彷徨하는迷路者의편지。죽어야할가。살어야할가。모든것을원망하고、모든것을否認하는、피와눈물로봉긴、近來의大文字……。

여름밤(詩劇) 부드러운여름밤金波가흘느는江가에서、힌모래와、푸른숩을등지고、첫사랑에우는엇던處女의설음。그것을詩로쓴、長編戲曲……。

三防川의月夜(感想) 朝鮮一의避暑地인三防。三防을써고흘너가는三防川에、이떠러짐에。永遠한神秘를그리고잇는、銀波雪月이、그얼마나아름답든가?이것을그대로그린長篇感想文……。

黃金의宮殿(童話) 녯날仙女가살엇다는、明華山속에숨은黃金의宮殿!이것을차저가는엇던어린處女의이약이를쓴것이니、滋味잇고、敎訓되는創作童話。

새로운동산에(對話) 사랑은엇더케살어야、참되이사는가。엇던곳에、眞理가잇는가?作者의人生觀을말한、힘잇고、감잇는、不可不讀의大文字……。

永遠의悲哀(感想) 人生은、쏫업시虛無하다。永遠한눈물이잇슬뿐이다。이것을硏究的으로쓴、長編人生論……。

金鷄山의半月淵(紀行) 黃海水、長山串灣에숨은、世界絶勝。山谷으로드러가면、深山幽谷에瀑布聲。진달네。山鳥의울음등奇巖怪石。만흔傳說이잇는그곳을차저가서讚美와눈물을뿌린長編紀行

憧憬時代(日記) 作者가、사랑에憧憬하고、文學에憧憬하든、多情多感한作者는、얼마나울엇든가、그모든비밀을쏘다논것이니、그日記를보라。

青春은가는데(詩五編) 가는青春을설어하고、떠나는사랑을、슬허한滋味잇고、深刻한新詩五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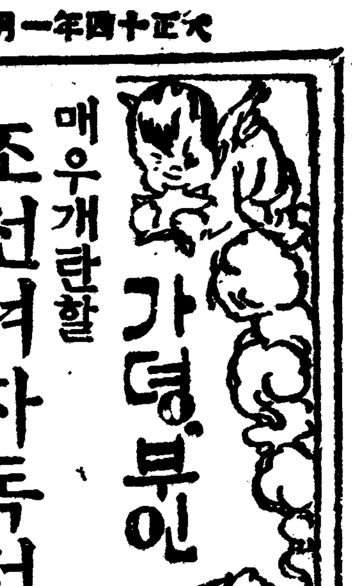
急告 무삼冊이나、어느곳發行을勿論하고、靑鳥社로注文하시오。다른곳보다信用과廉價로보내드림니다。

京城寬勳洞一二三番地 振替京城一二八三七番 青鳥社

하이카라洋裝極上本 綿色布半裁 三百十페지 一頁 一部定價 一圓二十錢

新舊書籍 迅速酬應 實價發賣

京城府齋洞五四番地 文化書館 振替京城一四四六番



가뎡부인

매우개탄할 조선녀자독서열

남자독서열의삼십분지일 해방을부르짓기전에알자

녀으라! 배호라!

조선녀자들아!

우리도 남과가티알라거든 읽고 배호기를 게을리하지말자 우리도사람다웁게 살려거던 철ㅣ히 읽고 분명히알자 우리 조선녀자들은 아즉도 독서의 열이 부족하다 셔양이나일본 녀자들에게 비교하면 권면히독서를안한다고 하여도 과언이아닐것이다 그들은 긔차나뎐차에 오르면 교실에 들어온학생들과 가티의례히책을꺼내드는것이한습관과가티 보힌다 조선녀자들은 소학교나 중학교학생들이 시험을치두기 위하야 밤을새여가며 교과서를 외우는—그런 독서외에야 별로히글읽는 녀자를보지못하겟다 혹 중학교 졸업정도의 신녀자들중에 간혹독서하는자가 잇다하여도 그반수는 소설이 아니면 한달에한번식 발행하는 잡지권에 지나지못할뿐이요적어도계통뎍으로전문뎍연구를하는 녀자들은 불과몃명이 못되리라고생각한다 긔자가일전에 명치뎡(明治町)부립도서관(府立圖書館)을 차저가서 최근 일개월동안에 독서하러오는

조선녀자 들의수효가얼마나되며엇던 종류의 책들을읽느냐고 물은즉 지난 십이월동안에조선인

男 二九六八人

女 一四人

인데 그십사인녀자중에는 한사람이십삼일을단엿고다른녀자가 하루를 왓다고한다 십삼일동안을간그녀자는철학(哲學)방면에 대한책을 만히읽는다한다 긔자가그도서관에를 갓든그날도 남자열람실(閱覽室)에는만원이라는패가걸리어잇고부인열람실에는 일본녀자만으로 뻑뻑히차서잇섯다 견지동(堅志洞)조선 도서주식회사에는 매일평균 책사러드리러오는사람이

男 三〇〇餘人

女 一〇人以內

가되고한성도서주식회사 에는

男 二〇〇餘人

女 五人內外

에지나지못한다 하며 녀자들은 대개 교과서(敎科書)나 참고서(參考書)를 사러드러오고 혹

잡지중에 신녀성조선문단을 사가는사람이 약간잇슬뿐이라하며 본뎡(本町)대판옥(大阪屋)에는 매일평균조선인 남자와 녀자의드러오는 수효를비교하면 三〇과一의비례가 된다고한다 이로볼지라도 조선녀자들의 독서열이 얼마나업는것을 능히추측할수 잇다 원컨댄조선녀자들아! 우리는 해방을부르짓고남녀 동등을부르기전에 먼저철ㅣ히알고 분명히 알기를힘쓰자 읽고배호기를 게을리하지말자

자녀교육의방법(二)

녜젼부터어린애학대하든일 어린애를잡아먹기도하엿다

二、아이와문명의판계

아이가 귀중하다는것은 이제다시 더말할필요가업거니와 진실로 세상에모든보배보다 가장아름다운것은 아이라고 찬미하고십습니다 예수씌서 디방을순회하실째에 여러사람들이 아이를 다리고 예수선생님께와서 복빌어주기를 구하엿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막는것을 보시고예수말삼하시기를 『어린아이 내게오는 것을 금하지마라 대개하나님나라는 이와가트니라 내가진실로 너희에게 일르노니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지아니하면 련국에 드러가지못하나니라』(마가 一〇一四—)하셧습니다 『지니바렌』이라는학자는 아이와가티위대한인물은업다고하엿고『휼』은 어린시대가 인생의락원이요 장성한후의 생활은 타락한것이라고하엿스며『쌕린돈』은인류의진화는 어린아이의세계와가티 되여야할것이라고말하엿습니다 그리고『집바렌』은 또한세상은 자식과 부모의힘으로 진보발달되는것과 각민족의 진보발달상에 아이들이 엇더한디위를 점령하엿는지를 밝히말하엿습니다 이와가티 비로부터 학자나시인이나 예언자들은 아이를

극히존중 히녀엿고세계의문명은아이들로인하야진보되는것을힘써말하엿스나일반으로는 아즉도 거긔까지는생각이미처지못하엿다고할수잇습니다그러나안간사회에서아이들의공헌하는바가얼마나큰것을연구하면연구할사록아동을연구하게되고 아동이라는것을알게되는동시에 다른모든것을연구하는것보다가장필요한일뿐아니라또한중요한의미가 잇는것을 확실이깨다를수잇습니다 문명이 진보되려사를 상고할지라도 사람사람이 아이를 존중히 녁이거된마음의 발달들극히 지둔하엿든것을 발견할수 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귀히녀기지 내어버려두고 작란한다고 내여쫏고따리고 하든것을볼쌔에『아이고참불상하다 도아주어야겟다』하고 동정하는마음이 반드시

넘어날터 이데 어린아이의생명을 보호하고 학대밧는아이들을 구원하겟다는 사람이엇엇든것은 피치못할 사실이올시다『문명의진보』란는것이『사회의진보』라는것과가튼 의미도아니요 문명이라는것이 사람의도덕심을 항상식히는것과 월치한것도아닙니다『쎄인』의말을드른면우리 인류가 이십사만년의긴력사를 가지고잇스나 소위문명이발달 되기시작한것은 겨우월천여년에 지나지못하엿고 사람을사랑하며 아이들을 보호하게 된것은 최근오십년에 더지나지못한다고 하엿습니다 그러나지금도오히려 아이의 권리를보전하기위하야 여러가지 설비를가추고 법률을세워 엄중히경계하것마는 사생자나 진실아들을죽이고

학대하고 하는사실이종종신문지상에 보도되는것을 볼진단참으로 사람을 존중히녁이고 아이를 도아주겟다는도덕심이 자긔의 마음에서스사로울어 나오게되려면 압흐로얼마나 시일을허비하게될는지예측키못할일이올시다그러나련년에는 더비록일부사회에지나지못하고 설비가 충분치못한지언정사회뎍으로국제뎍으로아동의보호방법을 연구하게된것은 다만보통을 밧는아이들 자신의행복이될뿐만아니라 세계 문명의 일대복음이 된다고 단언할수잇습니다

江華에染病 남매가걸려

강화군화개면 상룡리(江華郡華蓋面上龍里)에본적을두고 방금 인천부우각리(仁川府牛角里)영화녀학교(永化女學校)긔숙사에 잇는동교교사박형남(朴亨南)씨와그누의동생형분(亨分)(一四)은 지난십사일부터 발병하야 이래 신흥동지난이십일에진단한결과 진정한장질부사(腸窒扶斯)로판명되야 좌동병원(佐藤病院)에 입원중이라는데 긘긔 학교생도 부형은 각별주의함이 조켓다하며병의 근원은긘긔 강화군화개면에는 방금장질부사가 류행중이라는바 그곳에서 뎐염되야온듯하다더라(인천)

長連에僵屍 신병과긔한으로

지난십칠일 오젼두시반경에 황해도장연서부리 길강대평(黃海道長連西部里吉岡大平)의집 압길에서 얼어죽은시톄하나를 발견하고 즉시소관장련경찰서(長連警察署)에보고한바 정관과소응공의(小隈公醫)가현장에출장하야 검안한후 시톄는당디면사무소에 인도하야 당디서부리공동묘디에 매장케하엿다는데 죽은사망자는 은률군서부면 청양리(殷栗郡西部面靑陽里)에사는 최달홍(崔達弘)(五三)으로폐질부사(肺窒扶斯)에걸려어더먹으러다니다가 죽은것으로 판명되엿다더라(장련)

襄陽自働車 故障、轉覆頻頻 일반은안심못한다고

강원도양양군읍내(襄陽郡邑內)에잇는 대동자동차부(大東自働車部)의 데륙십칠호자동차는지난십사일 오후세시경에 양양읍내에서 주문진(注文津)을 다니어도라오는길에 동군손양면 밀양리(巽陽面密陽里)부근에서자동차의『수프링』이부러지면서그만뎐복이되얏다는데다행이인축에는 부상이업스나 손해는약일백원가량이라하며 그자동차 운뎐수는 리재의(李載義)이라하며 그자동차부의 자동차가일년도못되는동안에 사오차나 뎐복되얏슴으로 일반은 매우불안히녀인다더라(양양)

紛料解結된 鎭南浦共信社 음력세말까지에 입부금전부반환

오래동안 분규중이든 합자회사 진남포 공신사(合資會社鎭南浦共信社)가 문뎨의 입부금(入部金)과보금(保金)을감하고 또감하야전액의삼할이본금되는금액을지난 십일월부터도로준다 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불을 개시한이래 진남포를중심으로 부근일대에잇는 부원(部員)에게는 거의다마치엇다는데 상금도버 각디출장소로부터 련일 수천매의 위임장을첨부한부원증(部員證)이 도착되는터인데 음력 세말까지는 전부다 마치게되리라더라(진남포)

青年講習閉門 학생은도로에방황

함남풍산군(豊山郡)청년강습소(靑年講習所)는작년일월십오일에당국으로부터 금년 일월십오일까지 인가를어더 진행하야오든바 근래에이르러 재정곤난으로인하야 동강습소 간부들이다시인가를청원 하지 아니하얏슴으로 강습소에문이 다치게되야 생도사십여명이 동군수에게 진정까지하얏스나 아모 효과가업서학업을 중도에폐지하고 사방으로방황하는것은누구나다 한학생들의진정을위하야슯허한다더라(풍산)

在監同胞를爲하야 동경각단데에서음악회개최

동경감옥에잇는 만흔 우리동포를위하야 오는삼십일 오후륙시에동경시외호총뎡『스코틀호—리』에서우리류학생 학우회뎐도교청년회 긔독교 청년회의련합주최로대음악회(大音樂會)를열터이라더라(동경)

江戶川小火

이십일오후 구시경에시내본뎡(本町)일뎡목 일본료리집강호천(江戶川)에서는불이나서 한참소동을 하엿스나소방대의 로력으로 곳진화되엇다는데 원인은연돌소제를 잘못한까닭이라더라

中國人慘死 흙구루마일을하다가 산이문허저치여죽어

국적을 중국산동성(中國山東省)에두고오래전부터 조선에나와진남포(鎭南浦)서외 마산리(麻山里)에 거주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일판을차저 단이면서품팔이를하야 지내든 우국진(于國鎭)(四四)이란 중국인 로동자는지난 이십일새벽부터 그곳뎨일공립 보통학교 운동장매축공사에 하로일금 오십전을밧기로하고 로동하다가 오전열시반쯤되여 그보통학교 뒤에흙파내든곳흔언덕이 문허저 무참히치여죽엇는데 이를들은 진남포경찰서에서 현장에 파견하야그곳중국인들의 대표자관인 중화상회(中華商會)서긔왕승보(王承寶)씨립회하에 시톄를검사한후 시톄는곳 그상회에 인도하엿다더라(진남포)

女知事就任

미국에서처음으로선거된녀지사(女知事)『레사스』주아—칸는부인은이십일『레사스』주지사로취임하엿다더라(모—스코뎐보)

東明書畫卒業式=만주

연길현동불사(延吉縣銅佛寺)에 설립된 동명서화학원(東明書畫學院)은그동안 원장박순(朴淳)씨외 여러간부와 강사리진순(李眞淳)씨의 열정으로 이십여명의남녀를 교수하야 오든바오는이십오일에 뎨일회 졸업식을 거행할 터이라더라(간도)

間島에展覽會=총독부

경영(總督府經營)의간도중앙학교(間島中央學校)에서는 지난 십일부터 열흘동안 부근각디에 잇는 보조서당의교원(補助書堂敎員)삼십팔명을 모하강습하얏스며 이어서이틀동안 교육품뎐람회(敎育品展覽會)와 각보통학교를 본위로한 교육자대회를 열엇다더라(간도)

竊盜常習의女子 밀경는검사국에

함남영흥군 남산리이번디 김창수(南山里二番地金昌洙)의 처김춘화(金春嬅)(二五)는본래성질이 불량하야 남의집에 교묘히출입하면서 의복긔명기타 미곡등을 절취하여가든 상습 자이라는데 지난십삼일에는 시내남산리(市內南山里)남옥룡(南玉龍)의집에 주인업는틈을 타서배추에며 닭히 침입하야 의복수십점을절취하야 자긔집에 감추엇든사실이발각되여영흥경찰서에 데포취됴중이더니 지난십구일에 취됴를마치고 검사국에 넘기엇다더라(영흥)

安州에도土疾 동면에나타난 환자륙십이명

안주군동면(安州郡東面)은토질잇기로 유명한개천(价川)과 접근하야잇슴으로그전부터동면에도 토질(지쓰토마) 환자가잇다고 일러오든바 작년구월경에경찰당국에서 됴사한결과 동면환자륙십이명 을동면에서발견하얏슴으로『에—미틴』주사를 려행시킨다하며 그외에 안주공립농업학교(安州公立農業學校)에도 륙명의 환자생도가 잇다는데황주(黃州) 토질이 점차로 중화(中和)로 옴마온것과가티 개천군파밋안주군동면의토질이청천강(淸川江)을 따라흘러안주 청내에까지 미칠념려가 잇다는데 동면내의 환자수 리별로보면다음과갓다더라

▲東面鳳祥里 五名▲鳳鶴里 一二名▲延豊里 三〇名▲雲興里 一五名(안주)

禁酒會熾盛과 술장사의락망

함남풍산군(豊山郡)청년금주회(靑年禁酒會)는 이미보도한바와 가티 지난일월에 조직되얏는데 조직된지 몃칠되지 아니하야 벌서가자가 담지함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이달이 지나지아니하야 풍산천군이 모다 금주회원이 될뎡세가 잇슴으로 당디주류판매업자들은 모다 락망중이라더라(풍산)

馬山에또小火

작십구일오후 일곱시경에 마산부부뎡 삼십일번디(馬山府富町)김진명(金鎭明)의집뒤나무적흔곳에서 불이일어낫스나 다행히초저녁이엇슴으로 큰일에 일지안코곳에바로 손해는대략십원에이르며원인은 됴사중이라더라

가뎡소식 소개수규(六)

운동선수 尹文姬孃 『테니쓰』와『핑퐁』을다 잘하는선수

송도고등보통학교(松都高等普通學校)의교장윤치호(尹致昊)씨의 셋재따님 윤문희(尹文姬)

◇……윤문희양……◇

양을소개합니다 그의가튼한열꽃은 누가보던지 자긔아버지의 모습갓다고 할수잇고 덕성잇는 어머니의 어진 교훈을 바든그의래도는 사람을대할때에 매우 공손합니다 그는금년십칠세의 묘령으로 경성녀자 고등보통학교 본과삼년에재학중인데 운동을매우잘한다합니다 일레키가 크고 셩적이쾌활한 그가날신한 운동복에 크러케트를 손에들고 코—트에 나설때에 그는과연녀류운동가로서 혁혁한 긔분이뚝뚝이 보힘되다긔자가 그를 자긔집으로 차젓슬때에도 그는 학교에서 학과를마치고 운동을 하다가 돌니어집에 도라왓섯습니다 그는테니스도잘하고핑퐁도 잘한다합니다『운동을매우잘하신다지요』하고뭇는긔자의말에『무얼이요그저취미가만흐니깨요』하고얼골에우숨을 쯰우며 운동가로서 진도가양양한그의압질이빗날듯잇습니다

〔童話〕 제비와마부(三)

제비는이것을보고 락담하야 사람으로알고일부러공손히부탁하엿는데 마부는(작일의『말』이라할흔오긔)날슴생이나 길즘생으로업슨녁이고 더욱더욱 거만이놀어간다 인제는 잠잣코잇슬수가업다고 뒤에서쏘차가서 술병을주동이로 쏘아서 쌔트리엇슴니다

마부도제비가듣것에게 커서는사람으로서테면이서지안는다 고허리에찻든『악귀』를들어제비를내켜 죽이려하엿습니다 제비는『무엇을요만한일에—』는하고이리돌고 커리돌아 이리커리날실날실피하며 마부를 놀려대엿기때문에 마부는천천분이나서 함부로『악귀』를내둘너도로혀자긔말에 머리를쌔려죽이엇습니다

마부는 고만긔운이다하야 설렁설렁자긔집을향하야가노라니 제비는 머리우에서 개한머리라도죽이고서는 네목숨도 조만간 죽고말리라하고 어데로 가버리엇습니다

마부는 간신히 자긔집에도착하엿스나 집에와보고 놀랏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고소중히녁이든자긔집뒤에 잇는밧에 몃십만머리인지모르는적은새가내려와서못처럼심어노흔 보리이나 기타모든것을모다쐬어먹엇습니다

마부는또분통이터저서밧가운데로잡담제하고 뛰여들쏘치려하엿더니 앗가제비가 총대장이되여가지고 몃십만머리 적은새를날새이게 지휘하야 나래에조고만상처도 밧지아니하고 도로혀마부를 놀려대엿슴으로 마부는『악귀』를 들러메이고 이리커리쏘차다니엇스나 고만 지처서밧가운데너머젓습니다

간신히 정신을차리어 사면을 도라보니 새가든것은 한머리도 보히지아니하고 오직 이삭업서진보리이삭우에 부러 지나가는 바람소래가 마부의신세를 조소할쌘이엿습니다

마부는 단지개한머리죽인 죄로 세상에서 못살게되여 짐승만도 못한 거지가되여 세상을 보냇슴니다(끗)

멍텅구리 련애생활 (43)

헛도적

(一) 멍텅이와옥매가 순사불으라간새에 윤바람은 빠저나갓다 (二) 순사가 그달에와서 (三) 대문이 잠긴쉽만치고 벼르럽다가 엉에업퍼지고 (四) 분푸리로 멍텅이만 경을첫다

奇人奇緣(85)

金漠靄 譯 / 靈心汕 畵

七五、은행전수

『그러면나는 이세상에업는사람가려되야서 당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얼골도 보히지아니하고 이름도들리지 아니하겟습니다 성명을이자리에서 죽이시고 처가지고 그러나성까지 변할것은업스닛가 김날호라고 하는지 검수만이라고하든지 김달호라고 하지오김날호라는 이름으로 돈을보내주시오 그만한 돈을가지고 미국으로가면 다시 립신을할수도잇고또상당한집으로 상가를 갈수도 잇지오』

다시립신을한다는것은될수업는일이나 그눈속이기도 잘하고 어느째는말도 잘하닛가 상당한집으로 장가를간다는것은 혹될수잇슬지도몰음니다

경호는 맘이달라지기젼에 조치하겟다는생각으로 일변주머니속에잇는 은행의 예금통장을 쓰내며 다짐을주어다

『젼부오만원그려고나 종에단시는 아모말도안코 또살아잇다는것도 아모에게도 알리지안치오?』

실상은 다짐을뚫것도 업슬는지몰랏것다 아마창배는 경호가 매수하지안는다하더라도 자긔에게 죄가만히잇서서 분명을쓸수도업고 또김날호라는 이름도 지금비로소 지은것이 아닐지도몰랏것다 엇잿던지그는 공공연하게 이세상에 살아잇다는것을 들어내노치 못할사람이닛가 얼마든지 경호에게서 돈만생긴다하면 다행이라하야 그래서 자긔가먼저 돈을십분지 일로주려서 극히서드는 것인지도 몰랏것다 혹은 오만원을또십분지일로주리려더라도 그는다행이라고들엇슬는지 몰은다 그러나 경호는 그러케 엄쿰할필요도업섯다 그의말이 변하기전에 곳예금통장을 쓰내가지고 남아지삼만원은 창배의말대로 미국으로보내는것도 어려울것업다고 생각하엿다 창배는 깃분듯이이것을 보며

『그러나경호씨! 사람이란참 변하기도하는구려 셩인이란말을듯던당신이 남에게 돈까지먹여가며 일을트려막는 악인이될줄은참의외요 엇잿던 이세상에서는 셩인보다 도악인이 지나기가쉬웁슴니다 그도나와가티악인이라는 간판을 내부치면 조흐로말하면 그러케 도멀구멍도업지마는 당신은아즉 간판이터리워지지아니하엿스닛가 감안히 악인노릇을하면 결코 돈에부자유할것은업슬것니다 한씨권장도 이제는차젓겟구려』

경호는 대답도안코 이만원의 절수를내밀며

『자 어서떠나시오 여긔서한사람이라도 아는사람을맛나서는 안되오 남아지삼만원은 지금부터 한달만에미국에서 찻도록하지오 삼십일이지난후에는 무효로맨들터이니 중도에서 우물우물해서는안되오』

창배는도로혀것버하며

『배에서상륙만하면 곳차즐수잇슴니다그려 고맙슴니다 고맙슴니다 경호씨! 이김날호는이약속을꼭직힐터이니 안심하십시오 이다음차로 곳선창으로 나아가서 오늘밤이라도 떠나는배만잇스면 곳 떠나겟슴니다 조곰 지데하다가는 삼만원이 도망가서는 큰일이닛가』하고 급히일어나서 차뎡을 나아갓는데 그는과연 다음차를타고갓다

창배가간후에 경호는 홀로안저서 오래생각하얏다 진실로 아모리 생각하야도 생각이 다할수업는 경우이엇다 아모리평소에과단人 성이잇는 사람일지라도 조흔생각이 날리가업섯다

그러나 엇잿던이제는 뎡희가 자긔의 안해가아닌것은 분명한일이엇다 창배가아모리 셩명을 변하엿다 하더라도 또한아모리 죽은줄로 세상사람들이 역인다 하더라도 창배는 움죽일수업는 창배이며 살아잇는것은 움죽일수업는 사실이엇다 세상을속일수는잇스나 경호는 자긔의마음은속일수가 업섯다 그의마음속에는 여뎐히창배가 살아잇섯다 살아잇다하면 뎡희는 물론창배의처요 자긔의처가아니엇다 안해가아닌것을 안해로 다리고잇슬수도 물론업는일이오 또한이후로 가티살수업는것은 물론이엇다

가티살수가 업다하면 서로남될수밧게는업는일인데 서로남이된다하면 한씨권장에서 자긔가물러가든지 뎡희를 나가게하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이엇다

改良藥酒 商標 아세아 亞細亞

愛飮家諸氏의企待하시던改良朝鮮藥酒 亞細亞가今焉出來하얏소이다

特徵

◎優良한品質로精造하야耐久力이偉大◎
◎嶄新한機械로搾出하야光澤이透明◎
◎高級的原料를選擇하야酒味가優越◎
◎其他醉後에도副作用은絶對無함

定價	
容器並 一斗入	九、〇〇〇
一升入	一、〇〇〇
四合入	五〇〇
二合入	三〇〇
一合入	一五〇

京城仁寺洞一八八 東亞産業合資會社 電話(光)一二七五番

●當壹月二十一日부터
哀話 死의勝利 全六卷
人情活劇 伊太利學?大作 狂戀의女 全七卷
空中로맨쓰 女飛行家 全六卷
▲豫告 陰正月一日公開될名畵
大活劇 勇猛兒
大悲劇 봄이오면 全八卷
幽靈의都 全十五編卅卷中
松竹 유니버살 特約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淋疾 (淋疾內服注射劑)

◉참神奇?今日에야安心使用일듯

治淋의王 藥價 二十日分 三圓七十錢 三十日分 五圓

번제는남녀림질과,부인오줌소래와,고름흐르는대와,급성림만성림,이러한중에업여마시고잡수시면二日內로소변이잘보이고침일간이면고름이것처서삼십일만쟁복하시면고롬도다시흐르지안코여하현림균일지라도젼부소멸되고맙니다일차시험하시면가졍할신제라하겟슴니다

(藥價는必히先金을付送하여도送料가無함)

京城府竹添町一丁目六十六番地 專門發賣所 昌榮商會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一三

綿糸布商 ㊀ 一興社

廣木、洋木、玉洋木其他各種綿絲布를直輸入하야京鄕間誠實懇切히都賣하며其外各種商品의委託販賣도敏速히取扱합니다

社長 張斗鉉

電話光化門一一三 電信略號〇一一

노마의 體質에꼭合致하는品質의물건을求하실時、이야말로『粉乳中의粉乳입니다』라고即座에勸할수가잇슴니다

國産 森永 도라이미루쿠 ドライミルク

適量의糖分을含有한 粉末牛乳

森永製菓株式會社

374

日露條約調印과 財界의影響如何

日露通商의斷絶은千九百十七年露西亞革命以來長久한歲月에亘하야政治上으로는論치안을지라도經濟上으로보아日露兩國의貿易打擊이不少하얏다元來日露間貿易은그다지巨額에達치는안엇스나近頃에歐洲財界의復興氣分을爲始하야將次國際的으로財界의曙光을期待하는此際에日露兩國의通商이 依然杜絶을繼續하는것은一般財界에서不少히障害를覺하든것은事實이든바再昨二十日午後十一時에日露基本條約이北京에서調印되얏는바此結果는아즉詳細는難測하나 將次日露貿易의關係는 間接으로朝鮮에影響을及할것이오其外에夥大치는안을지라도北部朝鮮各港에直接影響이不少할것이며더욱이此에刺戟되는株式界가如何히轉開될는지財界의注目할問題임을不失할것이더라

一擧手로考慮할것은從來朝鮮人은勿論諸外國人의入國을禁止하얏든바此가再次復活되면朝鮮人의出稼가多할것이오次에貨物의輸出問題이나此는前述과如히現在의態度가더조금平靜에復歸치안는限에는큰進展은無하리것더라

貿易上 影響不少

漢銀頭取韓相龍氏談

日露國交의 斷絶로 因하야는彼我共히障害를受하얏다數年間에亘한交涉은或은中斷或은繼續하얏든바今回에遂히調印된것은慶賀하는바이다爲先通商關係가回復되면露西亞로부터小麥、金、木材、毛皮가日本에輸入케될것이오日本에서는雜貨、機械等이輸出될것이다何如間貿易界가一轉換을生하는此際에兩國의

國交回復 은貿易上至大한影響을來할것이오此로因하야日本株式界에影響이有하리라云하는者有하나此에對한아는果然如何이될는지疑問이다다만日本의利權問題가如何한程度에至하얏는지不知하나漁業、油田等에는相當한有利條件이附하얏스리라고傳한다今에歐洲財界도好況에向하는此際에日露條約成立으로日本과貿易其他에部分的으로漸次良好케될것이다

急速한 復活은困難

井內朝銀理事談

日露交涉調印은多年의懸案이든바實로慶賀에不堪한다爲先北樺太의石油石炭等利權問題漁業問題貿易關係事業投資關係等이經濟上有利는勿論할것이나此에伴하야決濟機關인金融機關通貨問題도當然히起할것이요對露貿易은

戰前 에도多大치는안엇고關稅라던지其他手續이든지在留日本人及貿易機關의引揚으로急히復活하기는困難할것이요朝鮮으로서는元來부터貿易關係가薄弱하얏슴으로交涉成立의直接利益으로는北道方面의港口가殷盛할것과果物食塩等이幾分輸出될것에不過하겟고但將來에對하야如何한處地와

關係 에在할는지此를傍觀만할는지如何한手段을講할는지는頗히重大問題로余의經驗으로는北海道에서林檎、玉葱、野菜雜貨等이相當히輸送되얏스나朝鮮도何等의開拓할餘地가有할것갓다一隣朝鮮으로서는對露關係를密接히結하야商權을擴張할事는極히必要한것이오又何人이라도希望하는바임으로努力하기를望하는바이다云云

航路問題如何 輸出企待尙早

石垣朝郵專務談

日露交涉도今回는遂히成立되야圓滿한解決을見함에至하얏는바此가朝鮮에如何한影響을及할가하면爲先與事組等의秩序와市內가平穩에歸키前에는當分現在의狀態로推移할外에無할것이오第

株式界는 入超로不振 綿絲、米穀도亦然

二十一日의株式界는日露交涉成立의結果活躍豫想이엿스나旣히人氣가先走하야今日에는相當히影響될것인데一月中旬對外貿易이入超四千七百餘萬圓이라는巨額에達하야上半期는棉花其他原料品의輸入에入超를豫期한다할지라도中旬의入超가太多하얏슴으로株式界는保勢와取引閑散을呈하얏고綿絲、米穀도亦然하얏더라

補助金利 의低減等에就

不足을補充할必要가有할뿐아니라그補充策으로滿洲粟의輸入은當地의不作으로此를不成이되며當局으로서도運賃의低減等에就하야서는相當한緩和를圖하는模樣이나結局의手段으로서하면運은도리혀當業者의損失이될것으로思된다側聞에依하면日本에서도神戶大阪方面에서鈴木、三井、其他의手로輸入된外米가堆積되야잇다고하는데目下로서는荷捌이不好하야閑却한模樣임으로此等輸入米를朝鮮에廻送함에對하야서는滿洲粟의不足을補充할수가잇슴으로近來日本으로陸續移入되야그量도旣히三十萬石에上하고尙히增加의希望이有하리라더라

中旬入超 四千七百餘萬圓

（大阪廿一日發） 全國主要貿易港十港貿易의一月中旬의對外貿易은

輸出	四四,六三二,千圓
輸入	九一,九八一,千圓
差引入超	四七,三四九,千圓

此大入超는神戶港이前旬부터繼續하야三千萬圓에近한入超이엿는데前旬出超이든橫濱港이生糸輸出의不振과紡績品、棉花、鐵材及砂糖等輸入增加로七百萬圓以上의入超를來한과大阪港이實棉及繰綿의輸入增加로百五十萬圓以上의入超를來한事等에歸因한것이더라

外米入來乎

最近日本에서는二個年이나米의不作이繼續하얏슴으로朝鮮米의日本移出이旺盛케되야大正十二年度에는實로四百萬石以上에達하엿스며本年度에도旱水害로因하야朝鮮內一般的으로二割의減收가有하엿다傳하나旣히三百萬을突破하는活況을呈하얏다此로因하야朝鮮에서는幾分食糧

昨年中貿易槪況

輸移入三億九百五十餘萬圓
輸移出三億二千九百餘萬圓

出超千九百四十四萬圓의新記錄

大正十三年十二月中朝鮮對日本及外國貿易은輸移出四千八百四十四萬餘圓輸移入三千三百二十四萬餘圓合計八千百六十八萬餘圓으로前年同月에比하야輸移出四百二十三萬餘圓輸移入九百三十七萬餘圓合計一千三百六十萬餘圓의增進을告하얏는데十三年中貿易全額은輸移出三億二千九百三萬餘圓輸移入三億九百五十九萬餘圓合計六億三千八百六十三萬餘圓으로昨大正十二年에比하야輸移出六千七百三十七萬餘圓輸移入四千三百八十萬餘圓合計一億一千百十七萬餘圓의劇增을示하얏고貿易의權衡으로는年計一千九百四十四萬餘圓의輸移出超過를計上하야此는年年히入超뿐이든朝鮮의貨物貿易上의最初의記錄이엿다

更히十二月中의貿易의內容을觀하면輸移出에는前年同月에比하야木材의減額이百四十萬餘圓에上한바此는昨秋關東地方震災後同方面의應急需要喚起에伴하야前年同期의移出이特히多額을算하얏슴에反하야本年은日本建築界의閑散으로因함이나同品以外에도鐵、魚類、小豆等이不振을呈한것이重要品中約三分의一을計하얏스나他의三分의二의貨物은모다增進을示하얏고就中米는數量으로는約九萬石의減少임에不拘하고價額에는二百三十七萬餘圓의增進을呈하얏고其他大豆、小麥、繰綿、牛及牛皮의朝鮮産은下半期以來好轉하고輸入滿洲産柞蠶絲等은引續하야出荷의增進을告하얏더라次에輸移入에在하야는木材의減退七十五萬餘圓을計上하고軌條其他의鐵材及諸機械類等도亦不況에終하얏는데朝鮮米의市價昂騰과前月來新穀의出荷旺盛의反面에外米及粟의入津이頻繁을加하야前者는約百二十萬圓後者는百四十七萬餘圓을增加하얏고加之生金巾類其他綿絲布著始하야石油煙草（主히葉煙草）小麥粉石炭等의增進도不少하얏더라

十一月中 金融經濟槪況（一）

（總督府調査） 昨年十一月中의金融經濟狀況을通觀하면前月

鐵珠板

▲알고보면日露條約은遂히北京에서調印되얏다 財界로는重大觀할만한日本의利權問題가詳細치못하기째문에、斯界의空氣는未免漠然 資本團이勞農國에對하야 돈버리하는手段을보자▲日露交涉調印의好材料도不拘하고 日本中旬貿易四千七百餘萬圓入超로株式界는鈍感一喜一憂라할外▲昨年朝鮮貿易은入超千九百餘萬圓의最初記錄突破 이것도질블것인다 朝鮮人生活困難도昨年이新記錄인지몰나

軟調

에因하다가月末에至하야는期米三十三圓五十錢正米三十五圓三十錢에下落되엿다大豆는京城穀物市場의龍山大豆가前月末十九圓六十錢의下向氣味로越月된바各地의出荷가漸增되어益弱氣를呈하고二日에十八圓七十錢에下하얏스나陳豆廣原料等의大需要가起하고且米價高의影響을蒙하야相場이擡頭되어十七日에는二十圓五十錢을唱하야取引은이미大部分이出盡되고또한新物은旱害로大減收이엇스나中國動亂終熄으로防穀令도解除되고比較的低價인滿洲新物의入荷가激增되어荷間氣味이엇슴으로市勢는恒常弱勢를示하얏스며新粟은上旬에十七圓三十錢中旬에十六圓八十錢下旬에十六圓五十錢을唱하얏다

期米도亦三等合格先物月越三十二圓八十錢으로부터漸次昂進되어十七日에는드되여三十四圓의高價를現하얏고正米도亦期米에伴하야昂進되여京城穀物市場의三等合格米는十五日三十六圓三十錢을唱함에至하얏다그러나其後天候恢復에따러各地의出荷가激增되고또한朝鮮內相場이高하야日本注文不引合과買注文一巡等으로必要品外는一般으로買控氣味이엇든故로期正米共히日本第二回收穫豫想減及中旬天候不良으로奧地物의出廻가激減되여人氣가再次引締되엿고仁川

期米

仁川期米第一報 廿一日

止價比較表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三五、[illegible]	—	—
中限	三四、二	—	—
先限	三五、四四	三五、[illegible]	[illegible]

前場反落

昨後場阪地三十九圓三十八錢의飛報와共히三十五圓六十錢에强히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阪地初付三十九圓三十八錢인昨止同樣의報를據하고 三十五圓 五十錢 인昨止價보다十丁低價로寄를始한後二節五十三錢外지小高하엿다가阪地二節三十錢으로稍漸低落하야六節二十六錢으로八九節二十錢인反히頭重形勢임을伴하고또한軟態에因하야八九節共히四十九錢으로結局四十八錢에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僅히五丁이며阪仁의鞘는三百七十一丁이더라

아즉도 買占尙早

大低米價의騰落을單히天爲에만放任할것이아니라人爲的으로도相當한條件을付하야材料를釀成하면또한效果가업지안는것이다果然本年度米價로말하면數字的으로나타나는그不足을認觀하는同時에누구나前途高價를主唱하는바이나그러나昨秋以來로政府米가拂下와又는買上延期로幾分買氣를沮喪케한外에山田筋의大渡米가堆積하야處理키難한問題로非常한軟勢를養成하엿다참으로山田渡米와政府拂下가안이엇더면阪地四十五圓當地四十圓의時代를無慮히演出하엿슬것이다政府買上은何時에實現할는지神經過敏한各地市場은今回高價를政府買上이나안인가하는半信半疑의說을傚出하는模樣이나아즉確知할바안이며一方으로兵阪兩地를亘하야準備된當限米四五萬石을買方으로서無條件히受取하게될는지此가疑問이며다다서軟氣를助長할셈이라고.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	三五、五四
二節	—	三四、三	三五、五三
三節	—	三四、三〇	三五、五〇
四節	—	—	三五、五〇
五節	—	—	三五、五一
六節	—	—	三五、五三
七節	—	—	三五、五〇
八節	—	—	三五、四九
九節	—	—	三五、四九
十節	—	—	三五、四八

後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三四、二六	三五、四五
二節	—	三四、一九	三五、四四
三節	—	三四、二〇	三五、四四
四節	—	三四、二〇	三五、五〇
五節	—	—	三五、五三
六節	—	—	三五、五〇
七節	—	—	三五、五〇

取組高

當限	六、三〇〇
中限	二、七〇〇
先限	三六、四〇〇
賣買石數	四八、七〇〇
本期總高	五三、三〇〇

似而非的形勢

當米의暴追으로三十八圓七十錢을示하든阪地는人新春의新値를示하든時勢는俄然一變하야三十九圓三十錢臺인六十餘丁의突高를告하엿다某處로부터傳하는바消息을據하면政府買上說이傳播되야各地一齊高價를報하자阪地『마바라』筋의煎退買物이簇出하야案外高價를演出하엿다한다此가果然大勢昂騰의起點이라할는지?

仁川正米突高

各地期米의一齊高調임을伴한正米界는俄然硬味를帶하야今朝⊙玄米는三等三十五圓인三十錢을突高하고四等三十四圓五十錢地賣米三十三圓二十錢인各二十錢의反高를示하엿스며精白米는三十九圓二十錢의不變으로正租는在來種은十錢四厘인一厘를反高하고改良種은十錢六厘인昨日과同樣이더라

米豆餘話

▲金을감고보며러도目下環境의事情은無非材料이다實價으로注目의焦點되는材料는早晩間實現될政府의買上이다▲바구를사면좋겟다하는말과가려 昨後場에는政府에買上說을主唱하고不意의反撥을示하더니今朝에入하야는阪報를比實惑만큼頭重의勢를呈하엿다▲結局將來는政府의買上과相俟하야一時高價를現出할을豫測하는바이나그러나去十二限의大渡米와將來受渡될一限米의消化되기外지는依然軟氣分을帶하리라고▲當正도압흐로는逼迫함을따더地方出廻는더옥더옥續增하는現狀으로는買方의警戒할處이다▲그러나不遠한被擬期를따러買占을計劃하는것은本年中正當한方策이라하얏스나아즉도時期問題外勤機를더企待하는것이得策일듯

大阪期米（廿一日）

	前場	後場
寄當	三八、六六	三八、[illegible]
中	三八、八〇	三八、[illegible]
一節	三九、二六	—
二節	三九、三〇	—
三節	三九、二九	—
四節	四〇、二八	—
五節	四〇、三七	—

東京期米（廿一日）

	前場	後場
一節	四〇、五五	四〇、六六
二節	四〇、三三	四〇、三六
三節	四〇、二〇	四〇、三〇
四節	四〇、三〇	四〇、三〇

各地期米（廿一日）

	前場	後場
兵庫	三九、二九	三九、八九
下關	三八、八四	三八、七九
桑名	三七、八八	三七、九八

各地期米比較 廿一日

	昨後止	今前付	比較
大阪	三九、三八	三九、三八	同事
兵庫	三九、八八	三九、九九	一一低
桑名	三七、九九	三七、八八	一一低
下關	三八、七四	三八、八四	一〇高
東京	四〇、三三	四〇、三三	同事

京取長期賣買及標準價格（二十一日）

株名	前場	後場	株名	前場	後場
京取	寄止		同新	寄止	
仁取	9250	9250	電興	380	380
長新	3400	3400	朝郵	寄止	
鮮銀	寄止		鮮鐵	[illegible]	[illegible]
同新	1600	1600	一新	寄止	
殖銀	5100	5100	二新	寄止	
同新	寄止		三新	寄止	
商銀	5600	5600	四新	寄止	
一新	2100	2100	京南	寄止	
二新	寄止		金剛	寄止	
漢銀	寄止		滿鐵	寄止	
同新	寄止		同新	寄止	
朝銀	寄止		東亞	寄止	
東拓	寄止		勸信	370	370
同新	寄止		朝信	寄止	
鮮土	寄止		殷信	寄止	
朝紡	寄止		奉信	寄止	
京電	寄止		安取	寄止	

京取短期

株名	付價	止價
京取	二八五〇	二八八〇
仁取	—	—
仁新	—	—
安取	—	—
鍾新	二二八〇	—
大新	九三五〇	九三八〇

株式

京取市場 前場大新低落 廿一日

京取	二〇低	仁新	保價
大新	九〇低	安取	保價
鍾新	一〇低		

（昨日終價와前場終價比較）

今朝는例의日露基本條約이二十日夜에調印된入報가잇슴에도不拘하고別段의刺戟이엽시寂寞步調로小口防賣에도不關하고九十三圓八十錢에大引되어十錢의上騰이엇고京取도二十九圓寂寞로二十八圓八十錢에大引이엇스며鍾新仁新安取는保勢이엇다

로前場에이어後場에는阪地가暴落되어大新이九十一圓四十錢、鍾新이百九圓五十錢大引에當地人氣는鍾綿되어買即와投賣로諸株가一齊新落을告하야京取二十七圓十錢 大新九十二圓 鍾新百九圓九十錢 仁新三十三圓安取 十圓十錢大引으로大激落을呈하엿다

中旬貿易入超로 日露交涉調印不響

●買氣를助長할듯 ●그러나從此도는

調印되기前부터逐日樂觀을못고買材料의一로日露漁業株等關係諸株의活躍과相俟하야一般株의買氣를促進케하든바雖產인日露基本條約이二十日午後十一時北京에서調印된入電이잇서도株界는從前과가튼例의神經過敏的商狀을呈치안코大阪의大新鍾新과如히은軟弱商狀을告하엿고當地는買氣勝으로 七十錢上稍이던것이겨우 十錢의上稍低落되엿슷스니이는 日露交涉

이調印된好響보다도 四千七百萬圓의中旬貿易入超가더影響

됨과 ... 急激한變動이업섯다그러나人氣는아즉不分明하야利權問題의如何歸結이未辨임으로是는아즉先高豫想充滿으로日益買氣가漸進되는터이나大阪大新의買玉整理로因한下押이一順後는昨今의押目組人氣와相俟하야活況이再燃될지니日露交涉의內容이日本에有利케되엇슬것가트면紡績株를先頭로하야人氣가一新해지리라觀測된다

地株亦不振

惟一의强材料이든京取의代引이二十日에는買方의受株로千餘가激減되어京取의上伸力을增長케한바今朝는巨額의中旬貿易入超發表로日露交涉調印入電도刺戟材料가되지못하고阪電이不味임으로京取도또한이에追從되어買氣의煥發이又復挫折되어二十九圓이드되어寒測되엿겻고仁新安取는各保價로一步합씁이엇다

前場諸株步調（廿一日）

▲京取 二八〇—八〇—七〇—八〇
▲仁新 三三〇〇—
▲安取 一〇三〇—
▲鍾新 一一一八〇—
▲大新 九三〇—一〇—四〇— [illegible]

後場激戰 諸株一齊暴落

京取	一七〇低	仁新	六〇低
大新	一八〇低	安取	四〇低
鍾新	二九〇低		

（前場終價와後場終價比較）

貿易入超와爲替의回復豫想等으로

後場諸株步調

▲京取 二八〇〇—三〇— [illegible]
▲仁新 [illegible]
▲安取 [illegible]
▲鍾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代引算定日步

株名	算定	代引	日步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鍾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高（廿一日）

合計 二千六百五十枚
累計 十一萬八千六百八十枚

大阪長期株式（廿一日）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 鐘紡、同新、大株、同新、郵船、同新、商船、同新、日糖、東紡 [illegible]

大阪短期株式（廿一日）

前付 前止 後付 後止 — 東新中引、大新、鐘新 [illegible]

大阪短期步調（廿一日）

▲前場大新 [illegible]
▲前場鐘新 [illegible]
▲後場大新 [illegible]
▲後場鐘新 [illegible]

綿絲

大阪三品（廿一日）

一月限、二月限、三月限、四月限、五月限、六月限、七月限 — 前付 前止 後付 後止 [illegible]

橫濱生糸（廿一日）

	前場	後場
當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武州格現物	[illegible]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 桑野仲買店 電話長三九番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廣澤正次郎 仁川府海岸町三丁目 電話六五、七〇、一六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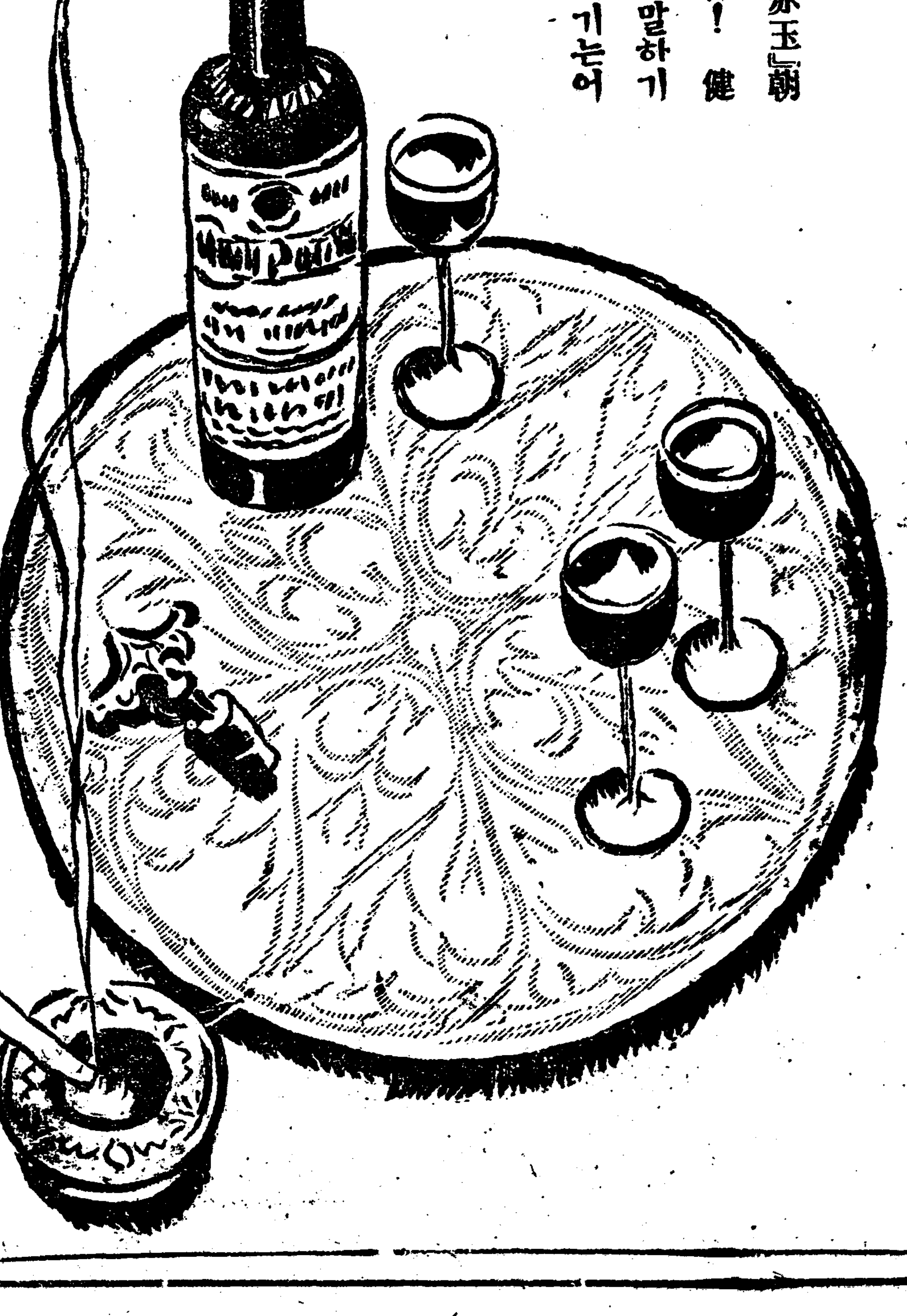
米穀肥料委托賣買 廣澤正次郎 仁川宮町二丁目 電話長三〇七番

一月廿一日부터 ◉舞臺新裝!! 革新의新劇!! 기네오라마返射鏡使用 光輝燦爛한舞臺는民衆藝術의聖殿으로化합니다 藝題活悲劇 琵琶歌 悲劇 幕의順序 一、黃鳳南家 二、張承模家 三、黃鳳南家後庭 四、同內室 五、大同江離別場 六、張承模家 七、萬鏡臺 民衆劇團員 白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話光二〇五番

通信敎授의覇王
中等科講義錄
天下의青年은何故로다토아서 本會에入會하는가
▲講義가親切한故로 ▲內容이充實함으로 ▲講師가一流인故로 ▲會費가低廉함으로 ▲讀者本位임으로 ▲機關雜誌가有함으로
會費 入會金五十錢（此際免除） 一個月分五十錢（送料二錢） 三個月分一圓五十錢（送料不要） 六個月分三圓（同上） 一個年分六圓（同上） 二個年分十二圓（同上）
獨學者는本講義에依하야成功의鍵을잡으라 在學生은本講義에依하야優等生이되라
內容見本（申込次第進呈）
會長 侯爵朴泳孝閣下 顧問 學務局長李軫鎬閣下 外十數名 評議員 殖産頭取 有賀光豊氏 外十數名 講師 師範學校都下各高等普通學校敎諭其他學士數名
發行所 朝鮮文斯學會 京城府旭町一丁目一二九 振替口座京城一一九二番

懸賞募集當選發表 品質保證票
壹等 A46258 臺灣 游氏 妹君 / 116359 香川 太田 四光君 / 171229 東京 茂浦 雅子君 / 92992 岡山 小池 澄かず君 / 195330 香川 西 山 君
貳等 A413759 秋田 最上 良藏君 / 78912 愛知 服部 賢太郎君 / 15454 佐賀 本多 醫院君 / 4956 德島 松田 照子君 / 83909 大阪 三村 眞三君 / 215108 愛知 靑山 忠一君 / 78161 愛知 神田 芳郎君 / 393620 大阪 平井 藥局君 / 811459 愛知 隅田 豊君 / 16251 東京 內藤 才兵衛君
三等省畧

グラキソ 구라키소
純良母乳代用品 粉末ミルク 미루쿠
見本說明書進呈합니다 新聞名記入請求하시면
發賣元 諸葉販賣株式會社 大阪東區淡路町三丁目 電話本局一一七四番
319



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아아!『赤玉』朝夕의一杯! 健康의길, 말하기쉽고行하기는어렵다
483